



통계로 보는 충청의 어제와 오늘

인구와 경제, 삶의 만족도까지 통계로 살펴본 충청지역의 변화

- 10년간 청년인구 비율은 모두 하락, 충북·충남은 고령 비율 20% 넘어
- 4개 시·도 삶의 만족도는 모두 전국보다 높고, 여가시간은 전국보다 짧아

충청지방데이터청(청장 서경숙)은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 등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충청지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인구·가구, 경제, 주거와 생활 환경, 건강·여가, 사회적 관계 및 삶의 만족도 분야에서 지난 10년 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충청지역은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낮아지는 등 인구·가구 구조가 달라졌다. 가구 소득과 자산은 늘었지만, 가구 부채는 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예전보다 높아졌으나, 주택 노후화와 비만율 상승, 일부 지역의 높은 자살률 등은 과제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결과】

청년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고령인구와 1인가구는 증가

충청지역의 청년인구(19~39세) 비율은 10년 전보다 4개 시·도 모두 낮아졌다. 반면, 고령인구와 1인가구는 모두 증가하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경우 충남(21.9%)과 충북(21.8%)이 전국(20.7%)보다 높았다. 1인가구 비율은 대전(40.3%), 충북(39.7%), 충남(38.7%)이 전국(36.6%)보다 높았으며, 세종은 33.3%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명목)은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실질)은 4개 시·도 모두 낮아졌고, 가구 소득과 자산은 증가했지만, 부채도 함께 늘어

지역내총생산은 4개 시·도 모두 증가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충북(5,633만원)·충남(6,776만원)이 전국(4,948만원)보다 높았지만, 실질 경제성장률은 모두 10년 전보다 낮아졌다. 2018년* 대비 2025년 가구 소득과 자산은 4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 가구소득 증가율은 충북 44.4%, 가구 자산 증가율은 대전 43.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구 부채도 33.3~42% 증가해 4개 시·도 모두 전국 증가율 24.3%보다 높았다.

* 2018년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공표함에 따라 2018년도 자료와 비교함

건강생활 실천율은 높아졌지만, 비만율은 모두 상승

2025년 '건강생활 실천율'과 '건강기 실천율'은 4개 시·도 모두 상승하였고, 19세 이상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은 모두 하락하였다. 반면, 비만율은 4개 시·도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충남은 2025년 37.2%로 10년 전보다 10.8%p 높아졌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4개 시·도가 전국보다 짧았다.

삶의 만족도*는 모두 전국보다 높고, 충남의 상승폭이 가장 커

*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사회조사)

2025년 삶의 만족도는 4개 시·도 모두 전국(45.3%)보다 높았다. 세종은 58.5%로 10명 중 6명 가까이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충남이 16.8%p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부문별로 만족도를 보면 '대인관계 만족도' 상승폭(13%p)이 충남이 가장 컸고, 여가생활, 근로여건·소득 만족도도 4개 시·도 모두 상승하였다.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이 분석자료가 충청지역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지역 시·도민들이 통계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안은진 (042-366-8140)
		담당자	팀 장	김영호 (042-366-8120)
			주무관	김승건 (042-366-8121)

통계로 보는 충청의 어제와 오늘

2026. 9.

일 러 두 기

- ☐ 이 보도자료는 충청지역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활용하여 충청지역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생활환경 및 삶의 질과 관련된 10년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분석하였습니다.

< 활용자료 현황 >

구분	자료명(출처)	작성항목	기준시점*
인구 가구	인구주택총조사(국가데이터처)	인구 현황, 가구 현황	2015~2025년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합계출산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2015~2025년
	생명표(국가데이터처)	기대수명	2014~2023년
경제	지역소득(국가데이터처)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2015~2024년
	전국사업체조사(국가데이터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20~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고용률, 실업률	2017~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가구 소득, 가구 자산, 가구 부채	2018~2025년
주거 · 생활 환경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주택 수, 주택보급률	2015~2024년
	인구주택총조사(국가데이터처)	미거주 주택(빈집) 비율, 노후주택 비율	2015~2025년
	지역안전등급현황(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2015~2024년
	건강보험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의사 수	2015~2025년
건강 · 여가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청)	건강생활실천율, 흡연율, 음주율 등	2015~2025년
	사망원인통계(국가데이터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자살률	2015~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휴일)	2016~2025년
만족도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근로여건 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	2015~2025년

* 기준시점은 2015년과 2025년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별 출처가 다양하고, 작성 연도 및 주기가 상이함

<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

- ☐ 본 자료에 수록된 수치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되어, 비교연도 대비 증감·증감률 등은 차트에 제시된 수치로 재계산 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차트 표기 중 「0.0」은 단위 미만을 의미합니다.
- ☐ 연도의 p 표기는 잠정 결과이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 ☐ 이 보도자료는 충청지방데이터청 누리집(<https://mods.go.kr/arc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충청의 어제와 오늘

대전광역시

01 인구·가구의 변화

총인구

2015년 1,538,394 명

2025년 1,469,299 명

↓ 4.5%



청년인구 (19~39세)

2015년 → 2025년

489,197 명 → 428,069 명

↓ 12.5%

65세 이상 인구

2015년 → 2025년

164,305 명 → 274,730 명

↑ 67.2%

1인가구 비율

2015년 → 2025년

29.1 % → 40.3 %

↑ 11.2%p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02 가구 경제여건의 변화

가구 소득

2018년 5,347 만원

2025년 7,588 만원

↑ 41.9%



가구 자산

2018년 → 2025년

33,924 만원 → 48,796 만원

↑ 43.8%

가구 부채

2018년 → 2025년

6,675 만원 → 9,121 만원

↑ 36.6%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03 건강생활·삶의 만족도 변화

건강생활실천율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

2015년 38.1 %

2025년 42.9 %

↑ 4.8%p



삶의 만족도

2015년 36.5 % → 2025년 48.6 %

↑ 12.1%p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세종특별자치시

01 인구·가구의 변화

총인구

2015년 204,088 명

2025년 392,471 명

↑ 92.3%



청년인구 (19~39세)

2015년 → 2025년

67,354 명 → 104,594 명

↑ 55.3%

65세 이상 인구

2015년 → 2025년

21,103 명 → 46,379 명

↑ 119.8%

1인가구 비율

2015년 → 2025년

29.1 % → 33.3 %

↑ 4.2%p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02 가구 경제여건의 변화

가구 소득

2018년 6,883 만원

2025년 9,482 만원

↑ 37.8%



가구 자산

2018년 → 2025년

54,717 만원 → 75,211 만원

↑ 37.5%

가구 부채

2018년 → 2025년

10,254 만원 → 14,564 만원

↑ 42.0%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03 건강생활·삶의 만족도 변화

건강생활실천율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

2015년 24.8 %

2025년 46.7 %

↑ 21.9%p



삶의 만족도

2015년 46.4 % → 2025년 58.5 %

↑ 12.1%p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통계로 보는 충청의 어제와 오늘

충청북도

01 인구·가구의 변화

총인구

2015년 1,589,347 명

2025년 1,656,520 명

↑ 4.2%



청년인구 (19~39세)

2015년 → 2025년

453,944 명 → 429,606 명
↓ 5.4%

65세 이상 인구

2015년 → 2025년

230,533 명 → 361,583 명
↑ 56.8%

1인가구 비율

2015년 → 2025년

28.8 % → 39.7 %
↑ 10.9%p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02 가구 경제여건의 변화

가구 소득

2018년 4,834 만원

2025년 6,980 만원

↑ 44.4%



가구 자산

2018년 → 2025년

31,201 만원 → 43,589 만원
↑ 39.7%

가구 부채

2018년 → 2025년

5,112 만원 → 6,982 만원
↑ 36.6%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03 건강생활·삶의 만족도 변화

건강생활실천율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

2015년 28.7 %

2025년 32.3 %
↑ 3.6%p



삶의 만족도

2015년 37.1 % → 2025년 45.9 %
↑ 8.9%p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충청남도

01 인구·가구의 변화

총인구

2015년 2,107,802 명

2025년 2,249,201 명

↑ 6.7%



청년인구 (19~39세)

2015년 → 2025년

612,530 명 → 573,428 명
↓ 6.4%

65세 이상 인구

2015년 → 2025년

332,764 명 → 491,765 명
↑ 47.8%

1인가구 비율

2015년 → 2025년

29.5 % → 38.7 %
↑ 9.2%p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02 가구 경제여건의 변화

가구 소득

2018년 5,266 만원

2025년 6,882 만원

↑ 30.7%



가구 자산

2018년 → 2025년

30,923 만원 → 39,460 만원
↑ 27.6%

가구 부채

2018년 → 2025년

5,590 만원 → 7,451 만원
↑ 33.3%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03 건강생활·삶의 만족도 변화

건강생활실천율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

2015년 27.5 %

2025년 37.4 %
↑ 9.9%p



삶의 만족도

2015년 32.8 % → 2025년 49.6 %
↑ 16.8%p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목 차

I. 인구 · 가구

- 1. 인구 현황 1
- 2. 가구 현황 4

II. 경제

- 1. 지역 소득 6
- 2. 사업체 현황 7
- 3. 고용 10
- 4. 가구 경제 11

III. 주거 · 생활환경

- 1. 주택보급 · 이용 13
- 2. 지역사회 안전 15
- 3. 보건의료 자원 16

IV. 건강 · 여가

- 1. 건강생활 실천 17
- 2. 건강 위험 요인 18
- 3. 사망원인 20
- 4. 여가활동 21

V. 사회적 관계 · 삶의 만족도

- 1. 사회적 관계 24
- 2. 경제생활 만족도 26
- 3. 여가생활 만족도 27
- 4. 삶의 만족도 28

- 【참고】 주요 용어 및 해설 29

I. 인구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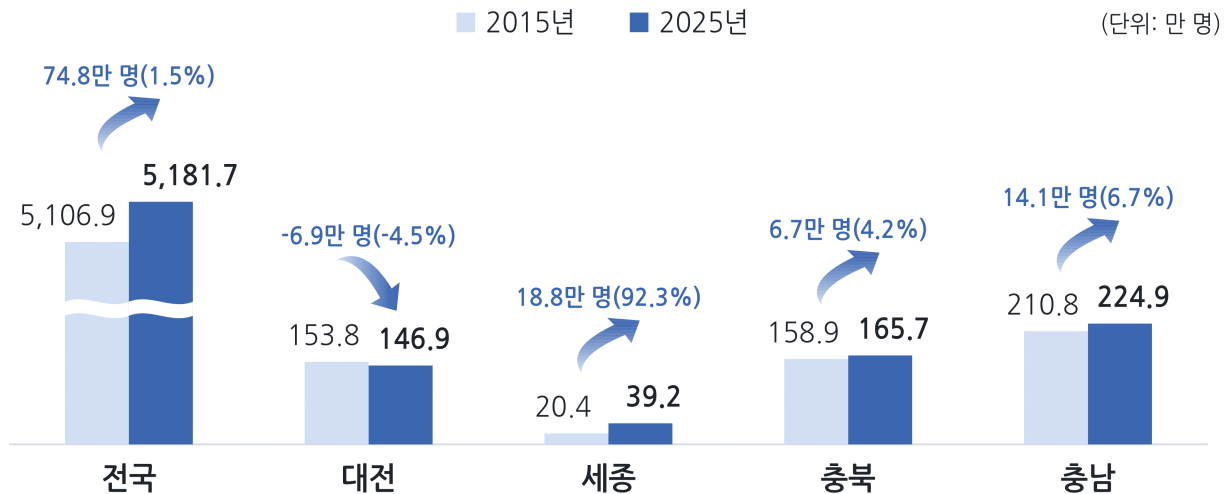
1. 인구 현황

■ 연도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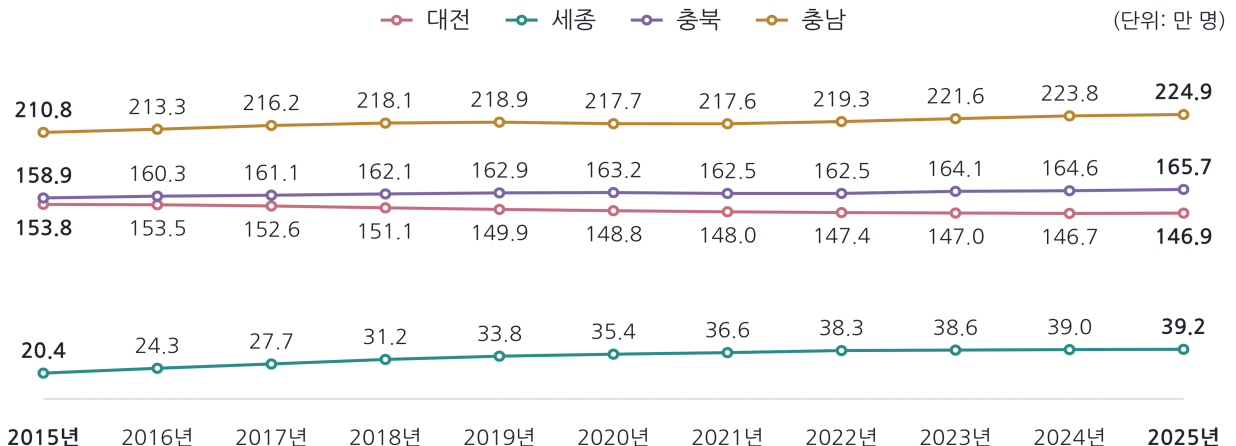
202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1.7만 명으로 2015년 대비 1.5% 증가
세종은 39.2만 명으로 92.3% 증가, 대전은 146.9만 명으로 4.5% 감소

- 2025년 전국 총인구는 5,181만 7,499명이며, 충청지역은 대전 146만 9,299명, 세종 39만 2,471명, 충북 165만 6,520명, 충남 224만 9,201명임
- 2015년 대비 2025년 지역별 인구는 세종 18만 8,383명(92.3%), 충남 14만 1,399명(6.7%), 충북 6만 7,173명(4.2%) 증가했고, 대전은 6만 9,095명(-4.5%) 감소함

< 총인구 규모 및 증감률(2015년 대비 2025년) >



< 충청지역 인구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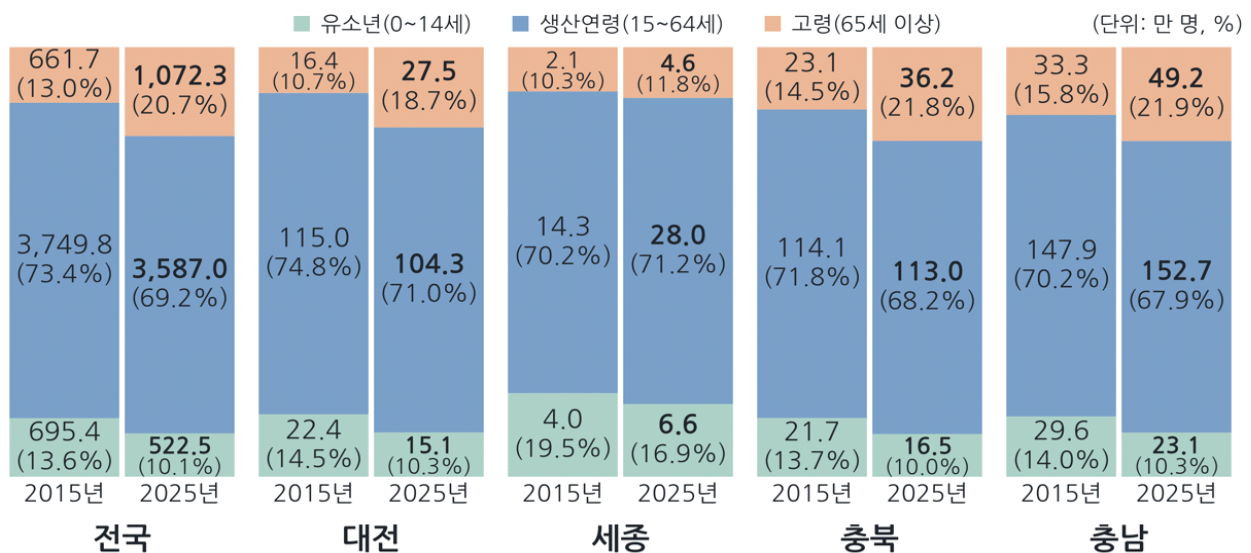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 연령 계층별 인구 현황

2025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5년 대비 세종은 95.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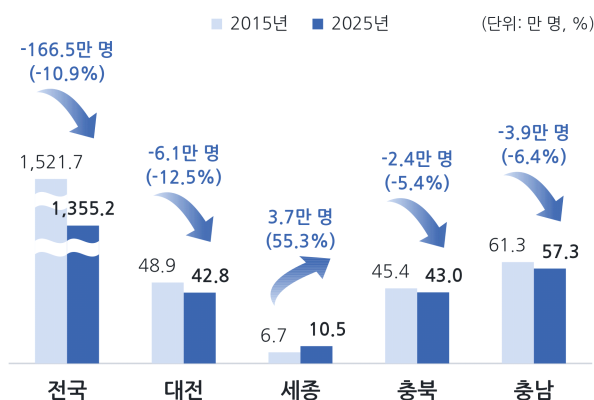
- 2025년 충청지역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각각 세종이 가장 높고(유소년: 16.9%, 생산연령: 71.2%), 고령인구는 충남이 가장 높음(21.9%)
- 2015년 대비 2025년 생산연령인구는 세종·충남은 증가, 대전·충북은 감소했고, 구성비는 세종(1.0%p)은 상승, 대전(-3.8%p)은 하락함

< 연령계층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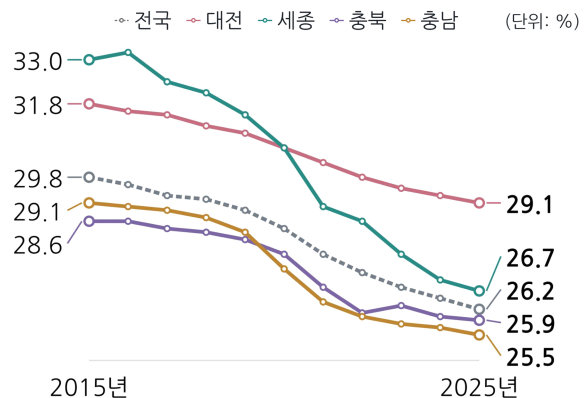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2025년 청년인구¹⁾는 세종이 3.7만 명(55.3%) 증가한 반면, 대전 6.1만 명(-12.5%), 충북 2.4만 명(-5.4%), 충남 3.9만 명(-6.4%)은 감소함
- 2025년 청년인구 비율은 2015년 대비 충청지역 4개 시·도 모두 하락함

< 청년인구 규모 >



< 청년인구 비율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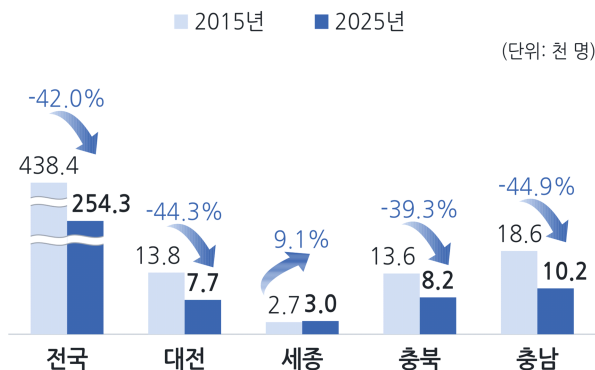
주: 1)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하나, 충청지역 3개 시·도(세종·충북·충남)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을 19~39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청년인구를 19~39세로 산정함

■ 출생 ·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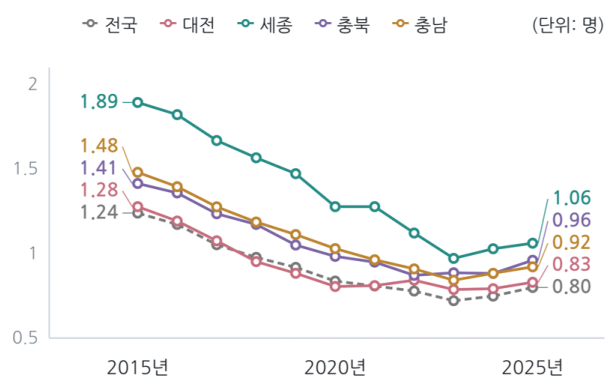
2025년 출생아 수는 대전 7.7천 명, 세종 3.0천 명, 충북 8.2천 명, 충남 10.2천 명으로, 2015년 대비 대전 44.3%, 충북 39.3%, 충남 44.9% 감소한 반면, 세종은 9.1% 증가함

- 2025년 출생아 수는 대전 7.7천 명, 세종 3.0천 명, 충북 8.2천 명, 충남 10.2천 명이고, 2015년 대비 대전 · 충북 · 충남은 감소한 반면, 세종은 증가함
- 2025년 합계출산율¹⁾은 대전 0.83명, 세종 1.06명, 충북 0.96명, 충남 0.92명으로 전국(0.80명)보다 높고, 2015년 대비 세종은 0.83명 감소함

< 출생아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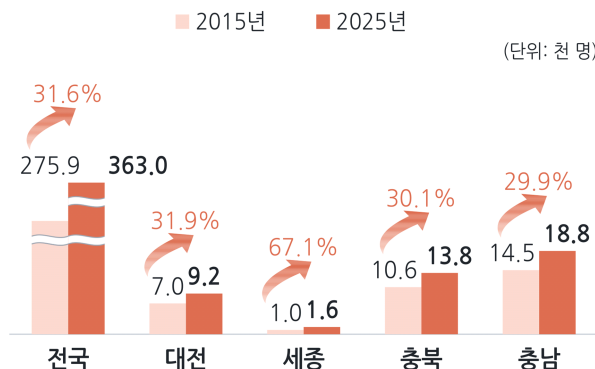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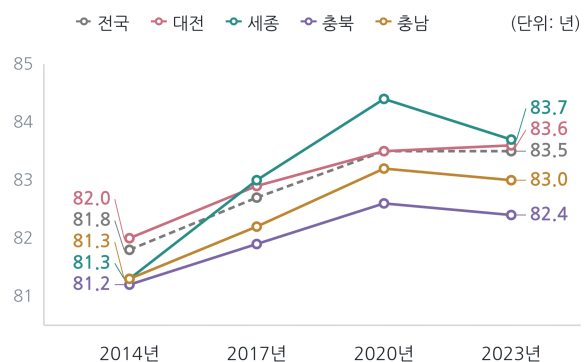


- 2025년 사망자 수는 대전 9.2천 명, 세종 1.6천 명, 충북 13.8천 명, 충남 18.8천 명이고, 2015년 대비 4개 시 · 도 모두 증가함
- 2023년 기대수명²⁾은 대전 83.6년, 세종 83.7년, 충북 82.4년, 충남 83.0년으로 대전 · 세종은 전국(83.5년)보다 높고, 2014년 대비 세종은 2.5년 증가함

< 사망자 수 >



< 기대수명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생명표」

주: 1)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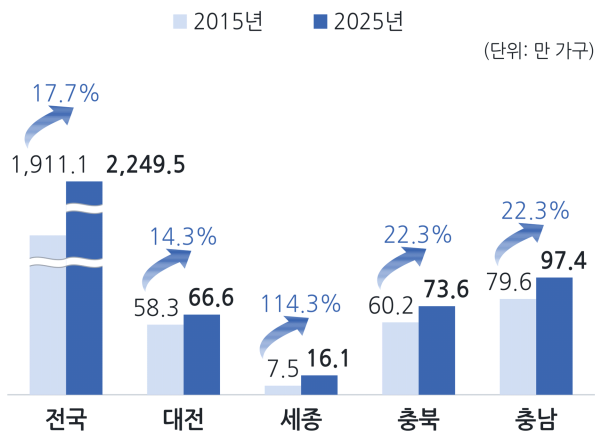
2. 가구¹⁾ 현황

▪ 가구원 수별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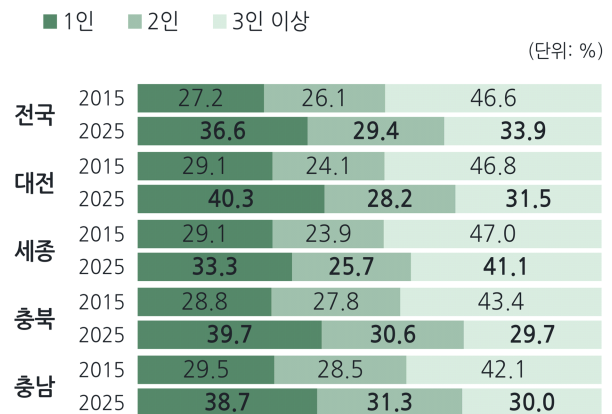
2025년 1인가구 수는 2015년 대비 전국은 58.4%, 세종은 145% 증가함

- 2025년 충청지역의 가구 수는 대전 66.6만, 세종 16.1만, 충북 73.6만, 충남 97.4만 가구이며, 가구원 수 구성비는 대전·충북·충남은 1인가구, 세종은 3인 이상 가구(41.1%)의 구성비가 가장 큼

< 가구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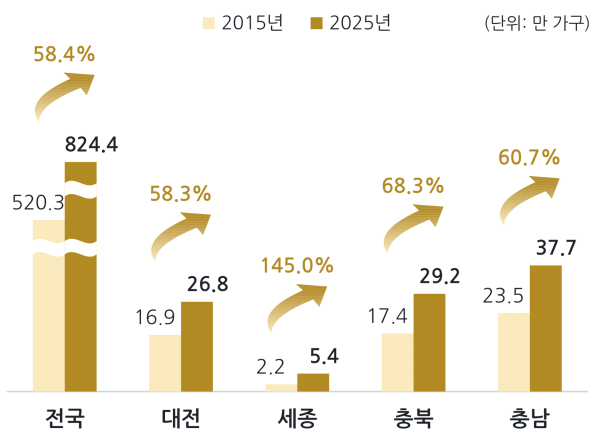
<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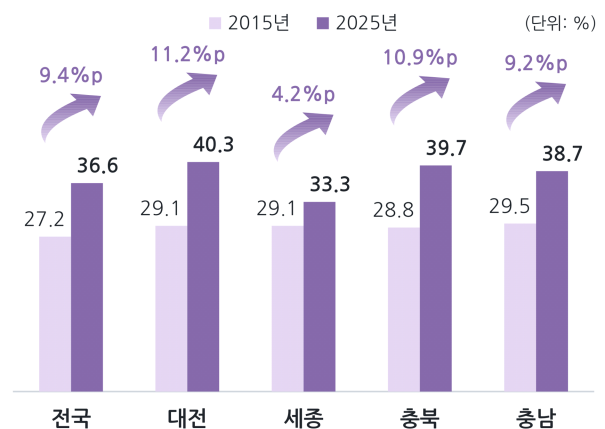
- 2025년 1인가구 수는 대전 26.8만, 세종 5.4만, 충북 29.2만, 충남 37.7만 가구이며, 1인가구 비율²⁾은 대전 40.3%, 세종 33.3%, 충북 39.7%, 충남 38.7%임

- 2015년 대비 2025년 1인가구 수는 세종이 145% 증가하였고, 1인가구 비율은 대전 11.2%p, 세종 4.2%p, 충북 10.9%p, 충남 9.2%p 상승함

< 1인가구 수 >



< 1인가구 비율 >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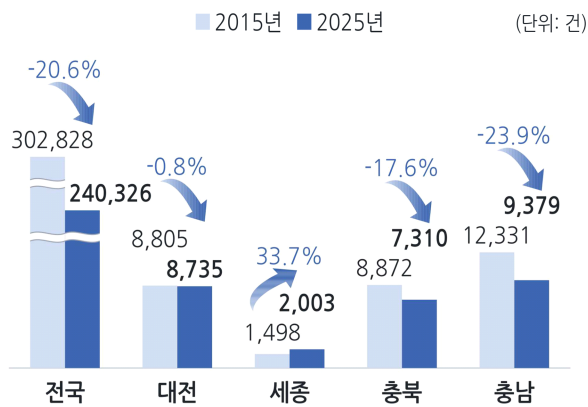
2) 1인가구 비율 = (1인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 혼인 ·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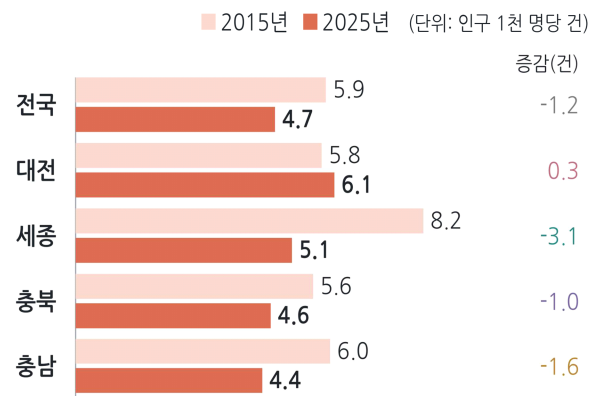
2025년 세종의 혼인 건수는 2,003건으로 2015년 대비 505건(33.7%) 증가
대전의 이혼 건수는 2,402건으로 2015년 대비 597건(-19.9%) 감소

- 2025년 혼인 건수는 대전 8,735건, 세종 2,003건, 충북 7,310건, 충남 9,379건이고, 2015년 대비 세종은 33.7% 증가한 반면, 충남 23.9%, 충북 17.6% 감소함
- 2025년 조혼인율¹⁾은 대전 6.1건, 세종 5.1건, 충북 4.6건, 충남 4.4건이고, 대전 · 세종은 전국(4.7건)보다 높음

< 혼인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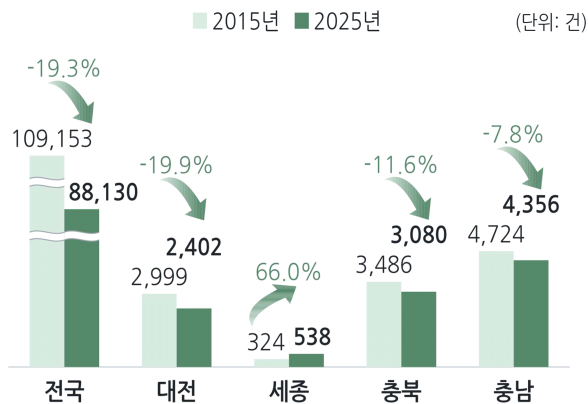


< 조혼인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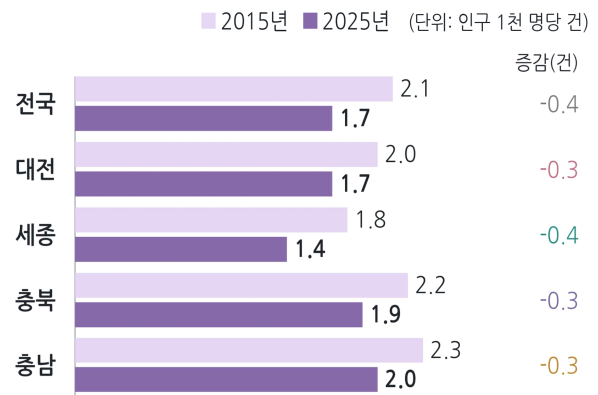


- 2025년 이혼 건수는 대전 2,402건, 세종 538건, 충북 3,080건, 충남 4,356건이고, 2015년 대비 2025년 대전 19.9%, 충북 11.6%, 충남 7.8% 감소함
- 2025년 조이혼율²⁾은 대전 1.7건, 세종 1.4건, 충북 1.9건, 충남 2.0건으로 충북 · 충남은 전국(1.7건)보다 높음

< 이혼 건수 >



< 조이혼율 >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주: 1) 당해 연도의 혼인건수를 같은 해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구 천 명당 건수)

2) 당해 연도의 이혼건수를 같은 해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구 천 명당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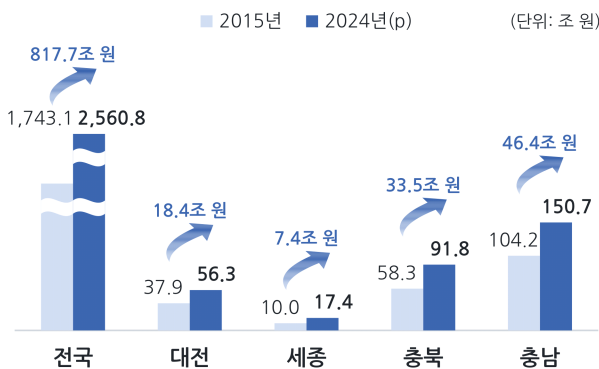
II. 경제

1. 지역 소득(지역내총생산¹⁾ · 1인당 지역내총생산²⁾ · 경제성장률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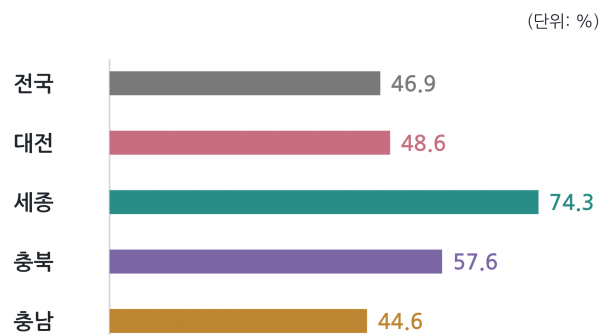
2024년⁴⁾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015년 대비 세종 74.3%, 충북 57.6% 증가하였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은 충북이 1,967만원 증가한 반면, 세종은 858만원 감소함

- 2024년 지역내총생산은 대전 56.3조원, 세종 17.4조원, 충북 91.8조원, 충남 150.7조원이고, 2015년 대비 2024년 지역내총생산은 대전 18.4조원(48.6%), 세종 7.4조원(74.3%), 충북 33.5조원(57.6%), 충남 46.4조원(44.6%) 증가함

< 지역내총생산(명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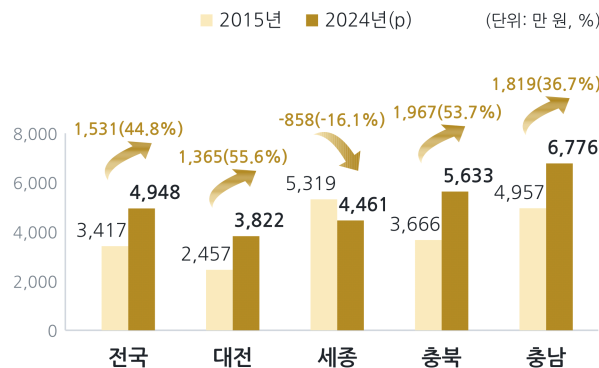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 증가율('15년 대비 '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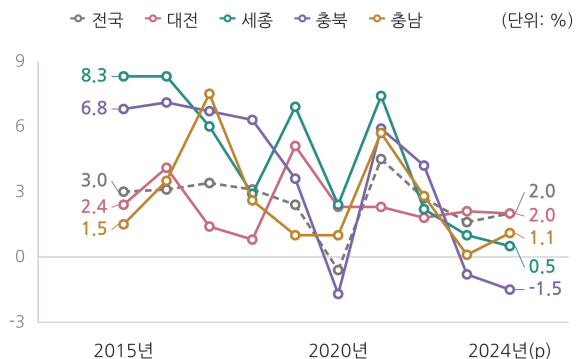


- 202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대전 3,822만원, 세종 4,461만원, 충북 5,633만원, 충남 6,776만원으로, 충남 · 충북은 전국(4,948만원)보다 높음
- 2024년 경제성장률(실질)은 대전 2.0%, 세종 0.5%, 충북 -1.5%, 충남 1.1%이고, 2015년 대비 4개 시 · 도 모두 낮아짐

<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 >



< 경제성장률(실질)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생산계정)」

주: 1)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

2) 지역내총생산을 추계인구로 나눈 값

3) 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 지역내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

4) 2024년 값은 잠정추계(p) 결과이며, 2026년 12월 확정추계 시 변경 가능

2.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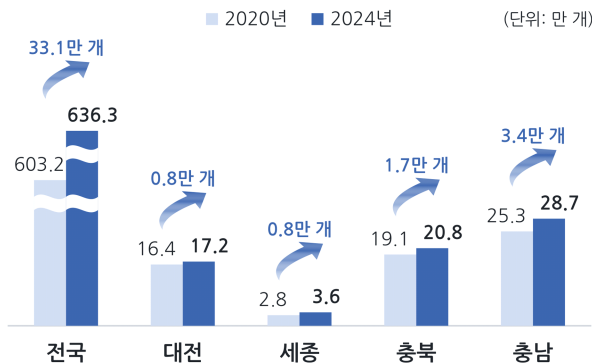
▪ 사업체 수

2024년 충청지역의 사업체 수는 2020년 대비 세종 26.8%, 충남 13.5% 증가하였고, 4개 시·도 모두 도·소매업 구성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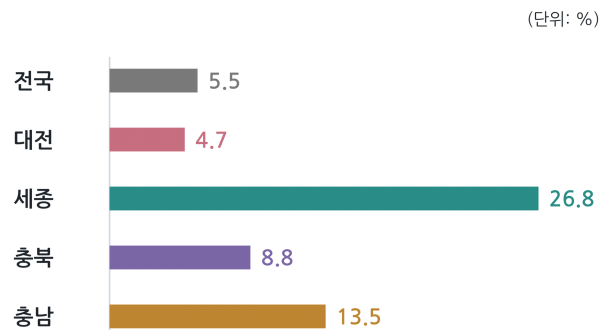
□ 2024년 사업체 수는 대전 17.2만 개, 세종 3.6만 개, 충북 20.8만 개, 충남 28.7만 개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사업체 수는 세종 0.8만 개(26.8%), 충북 1.7만 개(8.8%), 충남 3.4만 개(13.5%) 증가하여 전국(5.5%)보다 증가율이 높음

< 사업체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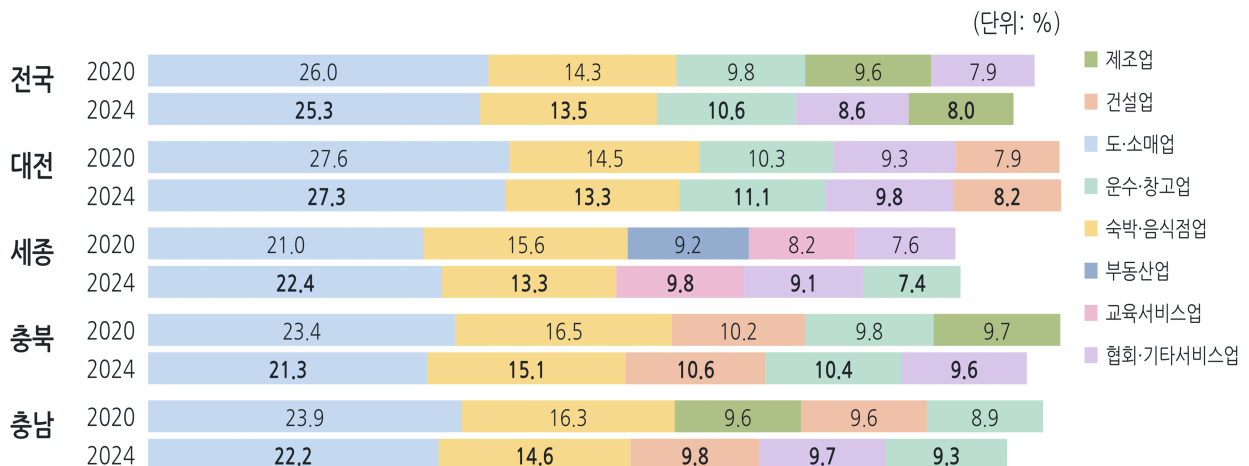
< 사업체 수 증가율('20년 대비 '24년) >



□ 2024년 산업별¹⁾ 사업체 수 구성비는 4개 시·도 모두 도·소매업이 가장 높고, 대전 27.3%, 세종 22.4%, 충북 21.3%, 충남 22.2%임

○ 2020년 대비 2024년 도·소매업의 사업체 수 구성비는 세종이 21.0%에서 22.4%로 상승하고, 대전·충북·충남은 하락함

< 시·도별 산업별 사업체 수 구성비 상위 5개(2020년, 2024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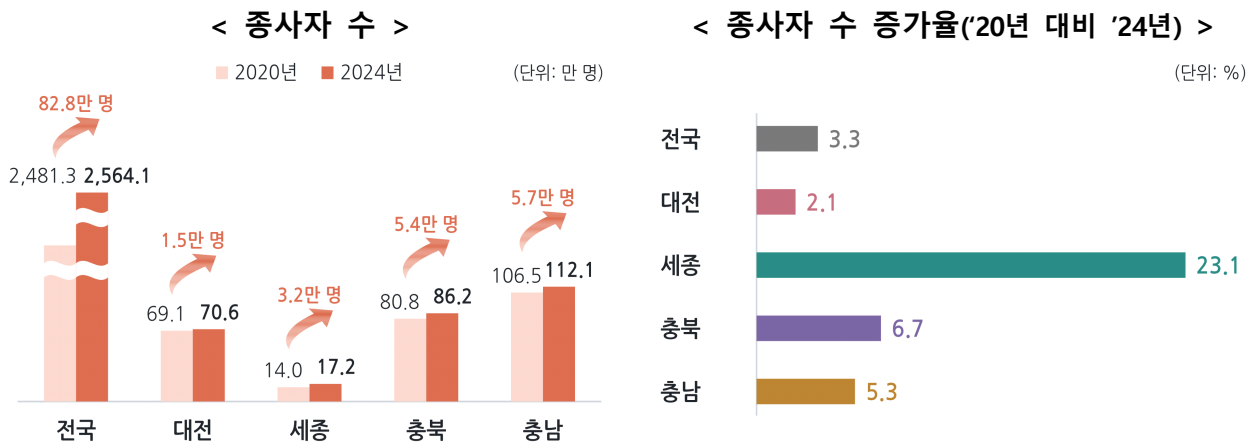
주: 1)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 사업체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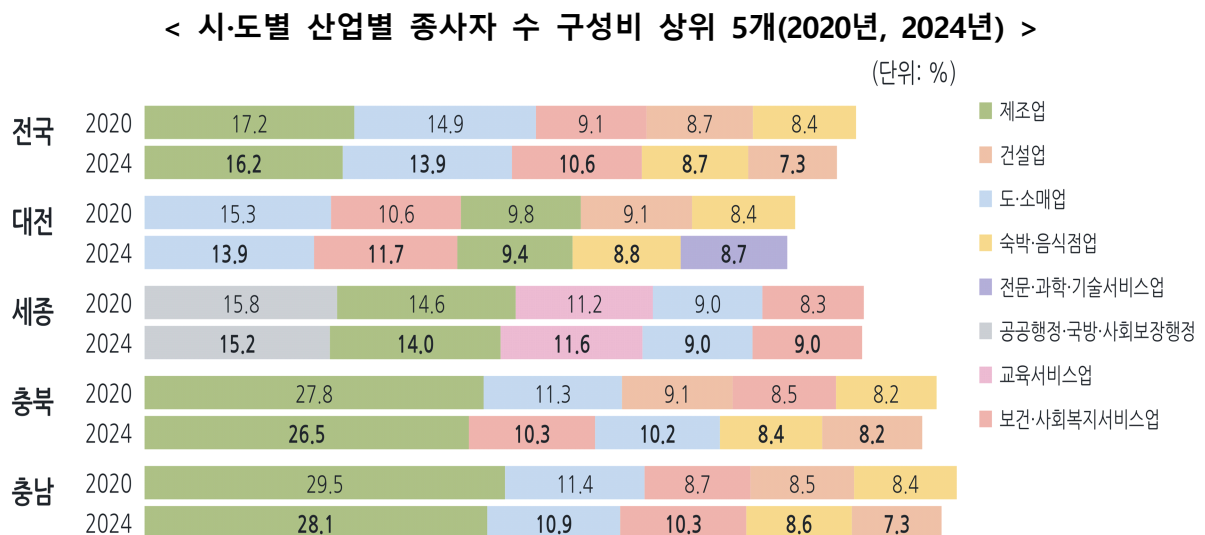
2024년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0년 대비 세종 23.1% 증가하였고, 제조업 종사자 구성비는 충남 28.1%, 충북 26.5%로 전국(16.2%)보다 높음

□ 2024년 사업체 종사자 수는 대전 70.6만 명, 세종 17.2만 명, 충북 86.2만 명, 충남 112.1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종사자 수는 대전 1.5만 명(2.1%), 세종 3.2만 명(23.1%), 충북 5.4만 명(6.7%), 충남 5.7만 명(5.3%) 증가하였고, 세종·충북·충남은 전국(3.3%)보다 증가율이 높음



□ 2024년 종사자 수 구성비는 대전은 도·소매업이 13.9%, 세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5.2%, 충북과 충남은 제조업이 각각 26.5%, 28.1%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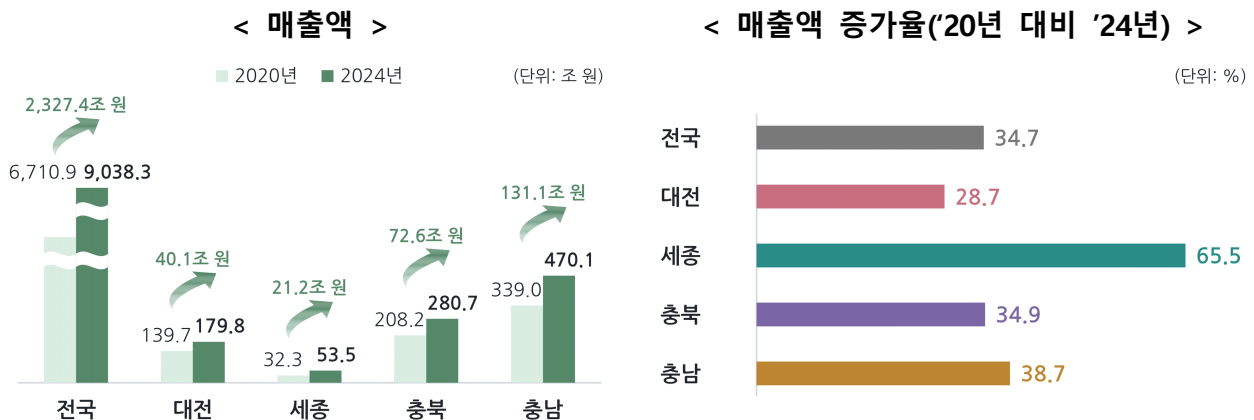


■ 사업체 매출액

2024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세종 65.5%, 충남 38.7% 증가하였고, 제조업 매출액 구성비는 충남 63.0%, 충북 57.0%로 전국(28.7%)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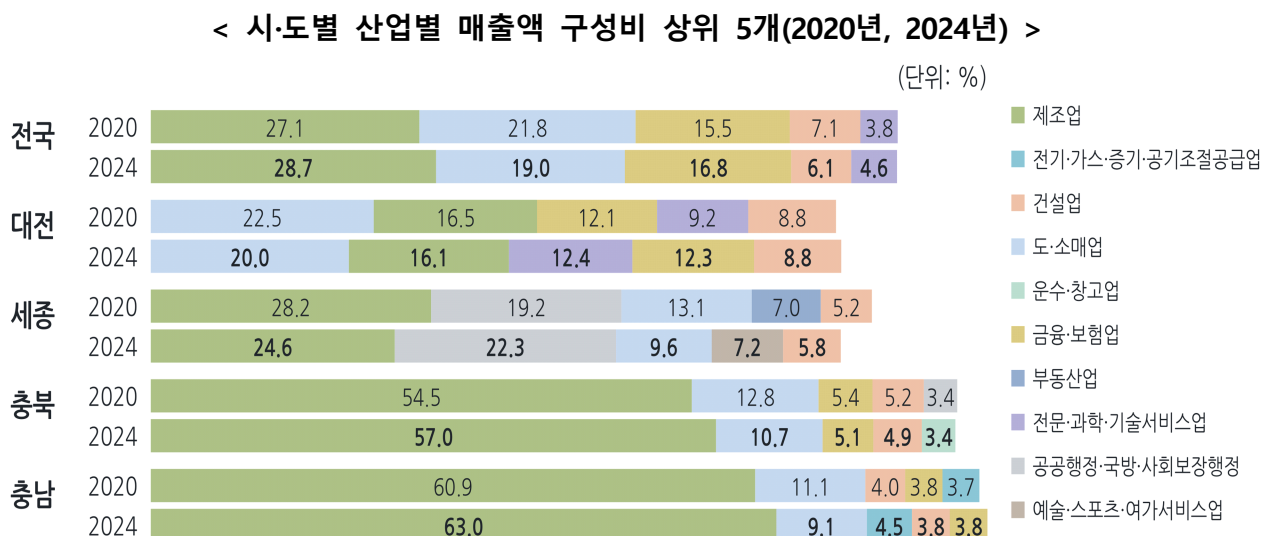
□ 2024년 사업체 매출액은 대전 179.8조원, 세종 53.5조원, 충북 280.7조원, 충남 470.1조원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매출액은 대전 40.1조원(28.7%), 세종 21.2조원(65.5%), 충북 72.6조원(34.9%), 충남 131.1조원(38.7%) 증가하였고, 세종·충북·충남은 전국(34.7%)보다 증가율이 높음



□ 2024년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는 대전에서 도·소매업이 20.0%로 가장 높고, 세종·충북·충남에서는 제조업이 각각 24.6%, 57.0%, 63.0%로 가장 높음

○ 충북과 충남의 제조업 매출액 구성비는 각각 2020년 54.5%, 60.9%에서 2024년 57.0%, 63.0%로 높아짐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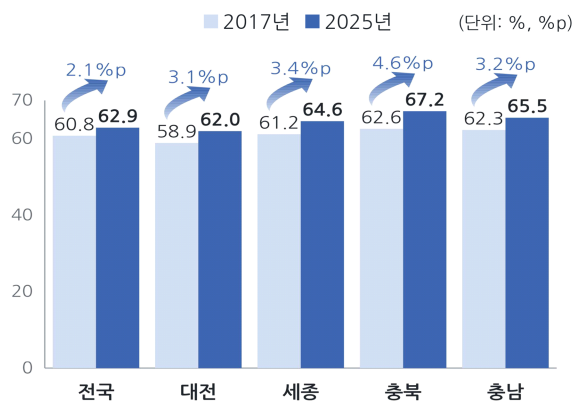
3. 고용(고용률¹⁾ · 실업률²⁾)

2025년 고용률은 2017년 대비 충북 4.6%p, 세종 3.4%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전국이 0.9%p 하락한 반면, 세종은 0.1%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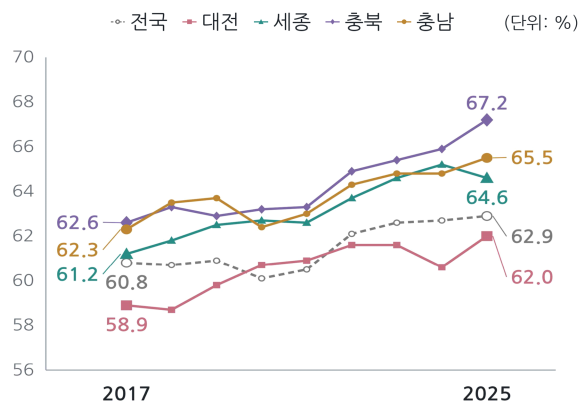
□ 2025년 고용률은 대전 62.0%, 세종 64.6%, 충북 67.2%, 충남 65.5%로 나타났고, 세종 · 충북 · 충남은 전국(62.9%)보다 높음

○ 2017년³⁾ 대비 2025년 고용률은 대전(3.1%p), 세종(3.4%p), 충북(4.6%p), 충남(3.2%p) 모두 전국(2.1%p)보다 상승폭이 큼

< 고용률(2017년, 202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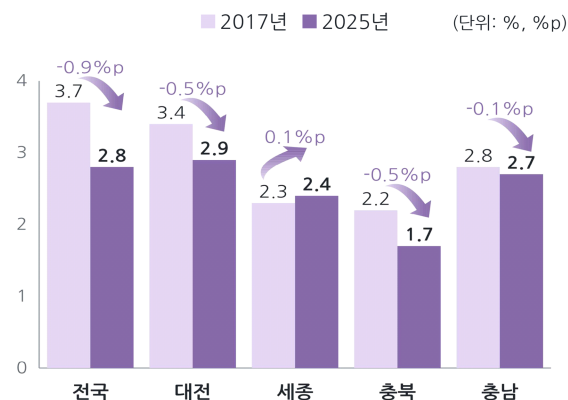
< 고용률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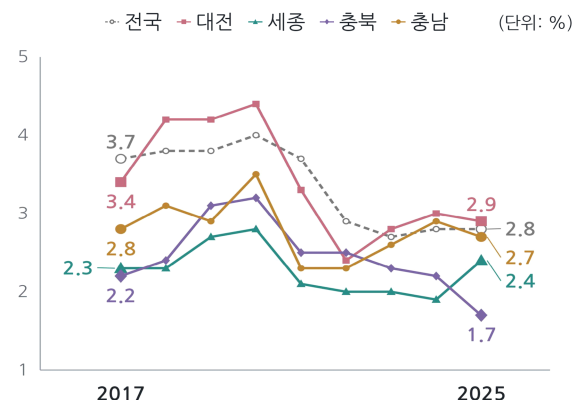
□ 2025년 실업률은 대전 2.9%, 세종 2.4%, 충북 1.7%, 충남 2.7%이고, 대전은 전국(2.8%)보다 높음

○ 2017년 대비 2025년 실업률은 대전 · 충북(각 -0.5%p), 충남(-0.1%p)은 하락하였고, 세종(0.1%p)은 상승함

< 실업률(2017년, 2025년) >



< 실업률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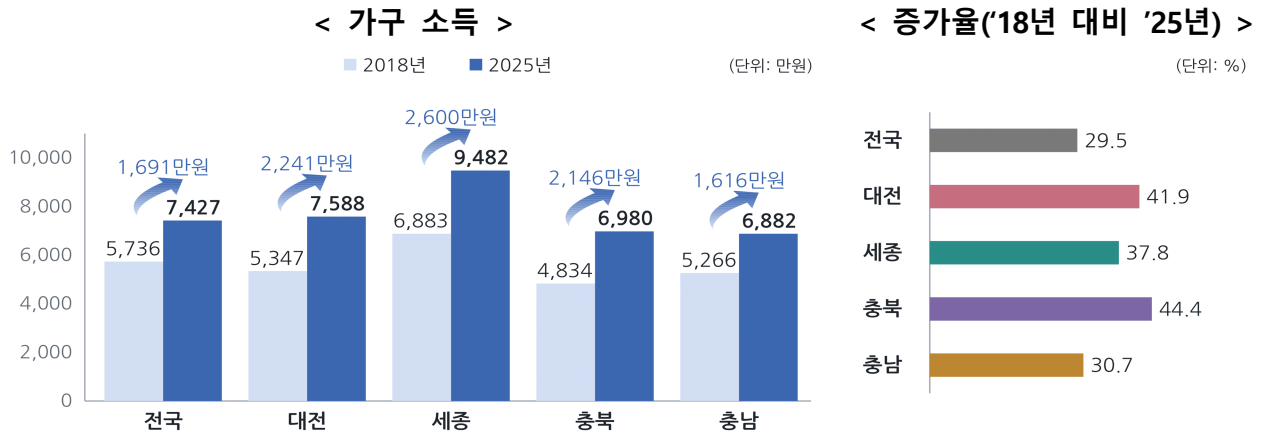
3)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부터 시도별 공표에 추가됨에 따라 2017년도 자료부터 제공되어 비교연도를 2017년으로 함

4. 가구 경제¹⁾[소득 · 자산 · 부채 · 순자산²⁾

2025년 가구 소득은 2018년 대비 전국 29.5%, 충북 44.4% 증가하였고, 가구 부채는 전국 24.3%, 세종 42.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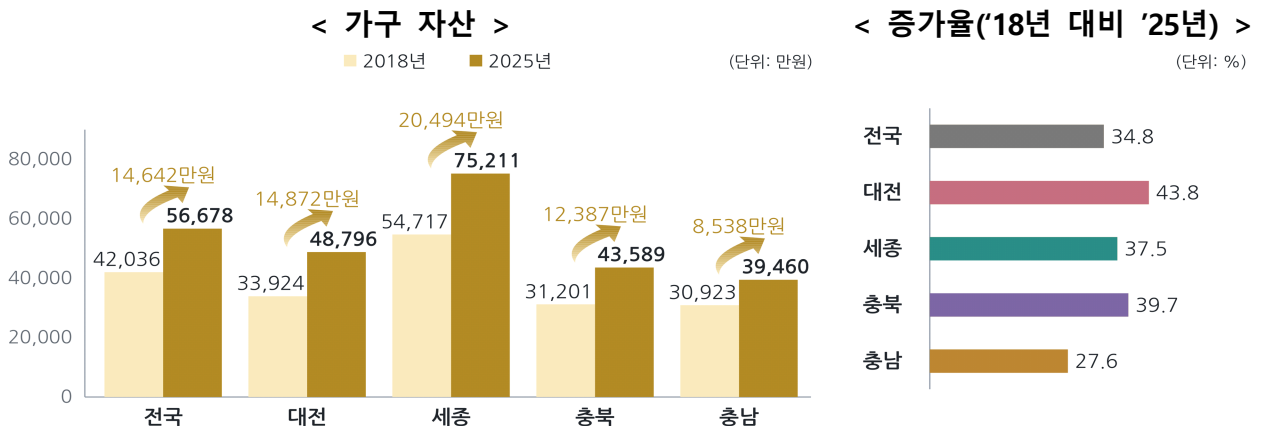
□ 2025년 가구 소득은 대전 7,588만원, 세종 9,482만원, 충북 6,980만원, 충남 6,882만원으로 세종·대전은 전국(7,427만원)보다 많음

○ 2018년 대비³⁾ 2025년 가구 소득은 대전 2,241만원(41.9%), 세종 2,600만원(37.8%), 충북 2,146만원(44.4%), 충남 1,616만원(30.7%) 증가함



□ 2025년 가구 자산은 대전 48,796만원, 세종 75,211만원, 충북 43,589만원, 충남 39,460만원으로 세종은 전국(56,678만원)보다 많음

○ 2018년 대비 2025년 가구 자산은 대전 14,872만원(43.8%), 세종 20,494만원(37.5%), 충북 12,387만원(39.7%), 충남 8,538만원(27.6%)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대전·충북·세종이 전국(34.8%)보다 높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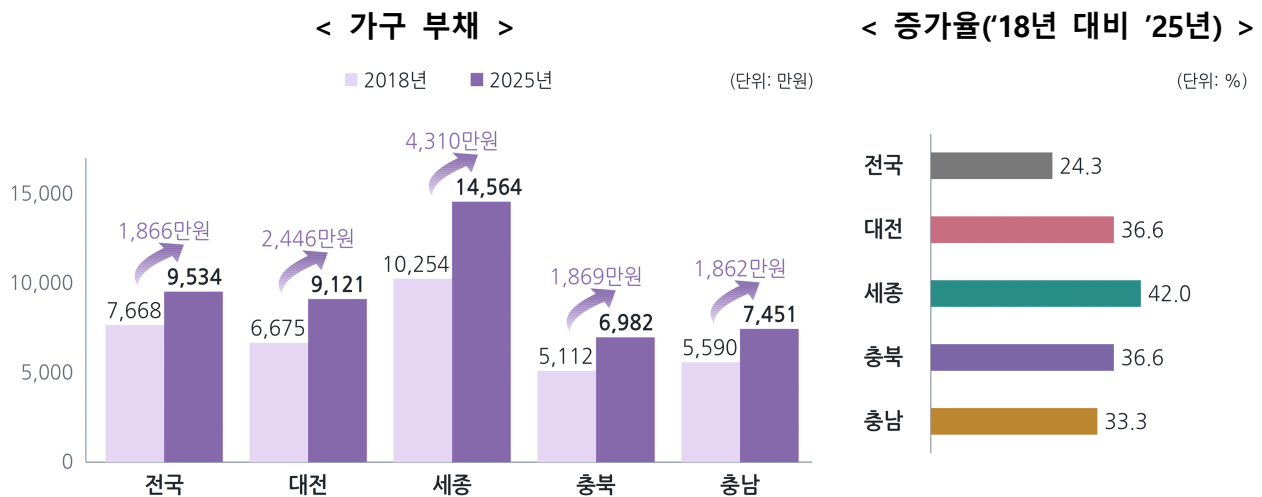
주: 1) 금액은 가구당 평균이며, 소득은 조사연도 전년의 연간 소득,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 말 기준임

2) 순자산 = 자산 - 부채

3)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부터 공표되어 2018년도와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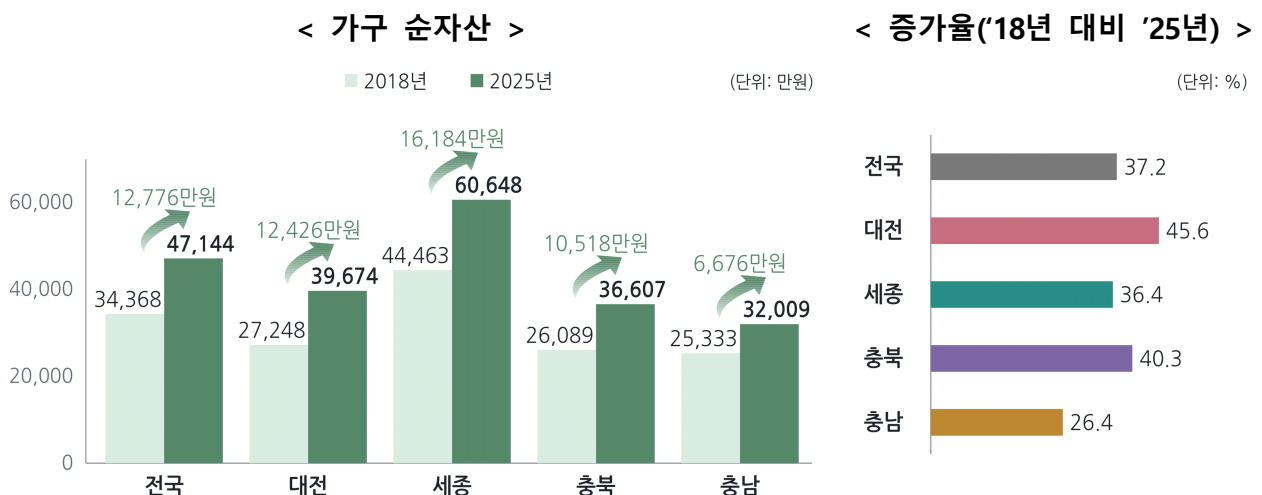
□ 2025년 가구 부채는 대전 9,121만원, 세종 14,564만원, 충북 6,982만원, 충남 7,451만원으로, 세종은 전국(9,534만원)보다 많음

○ 2018년 대비 2025년 가구 부채는 대전 2,446만원(36.6%), 세종 4,310만원(42.0%), 충북 1,869만원(36.6%), 충남 1,862만원(33.3%)으로 증가하였으며, 4개 시·도 모두 증가율이 전국(24.3%)보다 높음



□ 2025년 가구 순자산은 대전 39,674만원, 세종 60,648만원, 충북 36,607만원, 충남 32,009만원으로, 세종은 전국(47,144만원)보다 많음

○ 2018년 대비 2025년 가구 순자산은 대전 12,426만원(45.6%), 세종 16,184만원(36.4%), 충북 10,518만원(40.3%), 충남 6,676만원(26.4%)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대전·충북이 전국(37.2%)보다 높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Ⅲ. 주거 · 생활환경

1. 주택보급 ·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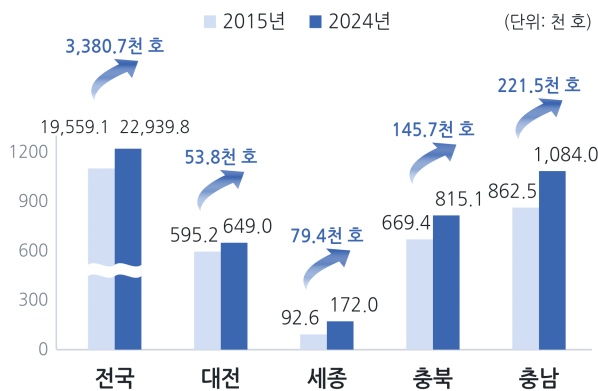
■ 주택 수¹⁾ · 주택보급률²⁾

2024년 주택보급률은 충남(112.4%), 충북(112.1%), 세종(108.2%)이 전국(102.9%)보다 높고, 대전(98.5%)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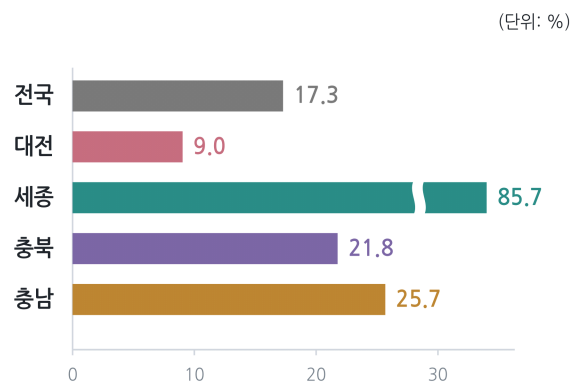
□ 2024년 충청지역 주택 수는 대전 649천 호, 세종 172천 호, 충북 815.1천 호, 충남 1,084천 호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24년 주택 수는 대전 53.8천 호(9%), 세종 79.4천 호(85.7%), 충북 145.7천 호(21.8%), 충남 221.5천 호(25.7%) 증가함

< 주택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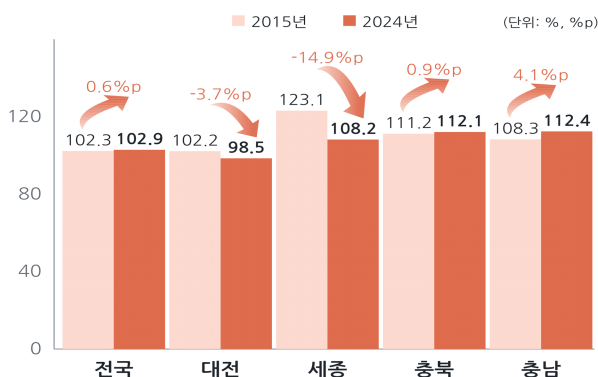


< 주택 수 증가율('15년 대비 '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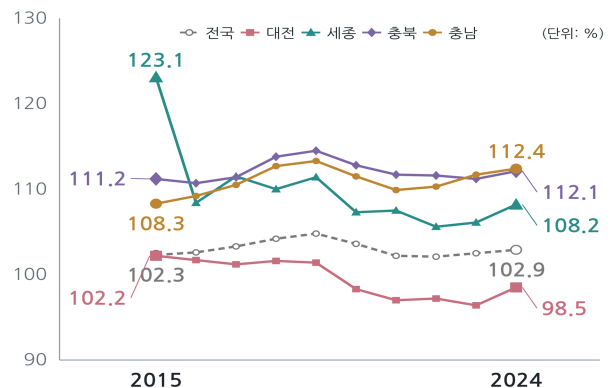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2024년 주택보급률은 충남 4.1%p, 충북 0.9%p 상승한 반면, 세종 14.9%p, 대전 3.7%p 하락했고, 충남 · 충북은 전국(0.6%p)보다 상승폭이 큼

< 주택보급률 >



< 주택보급률 변화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주: 1) 빈집을 포함하고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한 다가구주택 안에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를 반영한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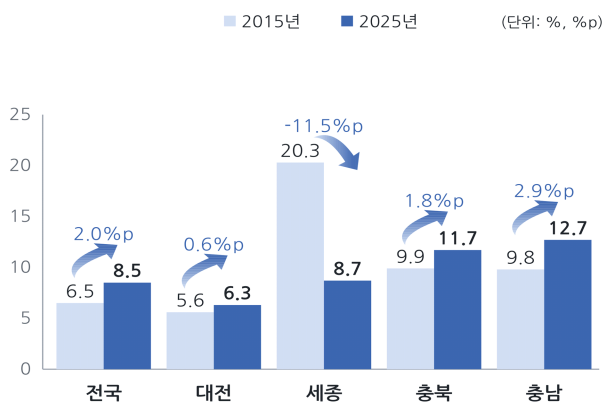
2)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일반가구 수) × 100

■ 미거주 주택(빈집)¹⁾ · 노후주택 비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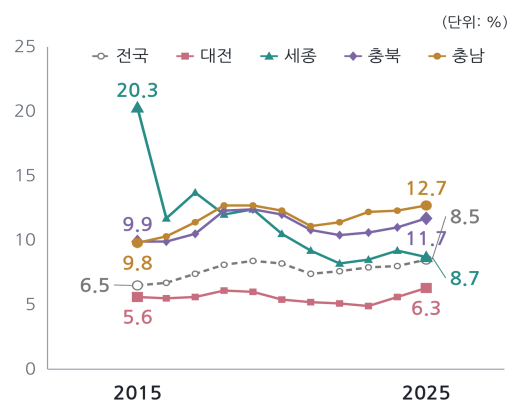
2025년 빈집 비율은 충남(12.7%), 충북(11.7%), 세종(8.7%)이 전국(8.5%)보다 높고, 2025년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대비 전국 14.3%p, 대전 26.8%p 상승함

- 2025년 충청지역 빈집 비율은 대전 6.3%, 세종 8.7%, 충북 11.7%, 충남 12.7%이며, 충남 · 충북 · 세종은 전국(8.5%)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빈집 비율은 대전(0.6%p), 충북(1.8%p), 충남(2.9%p)은 상승한 반면, 세종(-11.5%p)은 하락함

< 미거주 주택(빈집)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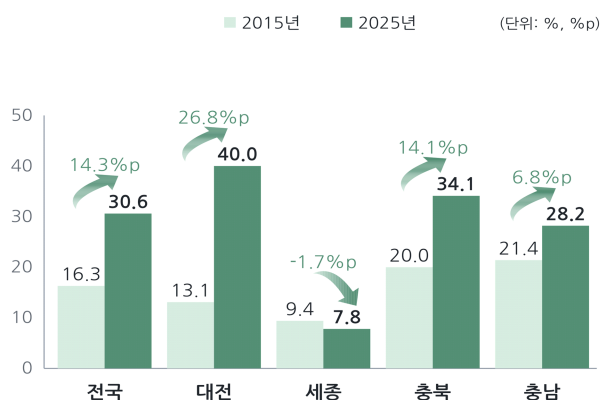


< 미거주 주택(빈집) 비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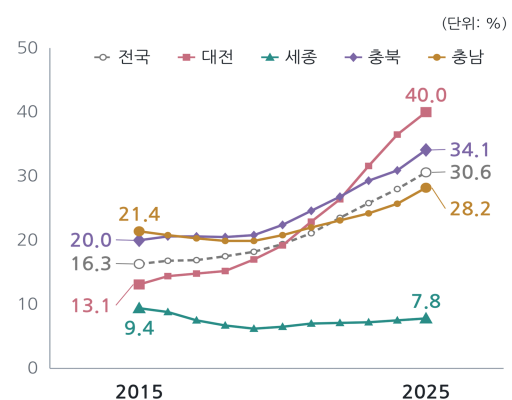


- 2025년 충청지역 노후주택 비율은 대전 40.0%, 세종 7.8%, 충북 34.1%, 충남 28.2%로 나타났고, 대전 · 충북은 전국(30.6%)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노후주택 비율은 대전(26.8%p)은 전국(14.3%p)보다 상승폭이 큰 반면, 세종(-1.7%p)은 하락함

< 노후주택 비율 >



< 노후주택 비율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주: 1) 미거주 주택(빈집) 비율(%) = (조사 기준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 100

2) 노후주택 비율(%)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 100

2. 지역사회 안전(지역안전등급현황¹⁾ · 야간보행 안전도²⁾)

2024년 충청지역의 지역 안전등급은 2015년 대비 세종 3개(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충북 2개(범죄, 감염병), 충남 2개(교통사고, 화재), 대전 1개(자살) 분야 등급이 상승함

- 2024년 지역안전등급 6개 분야 중 1~2등급 분야는 세종 3개(화재, 범죄, 자살), 충북 2개(생활안전, 감염병), 대전 1개(자살), 충남 1개(화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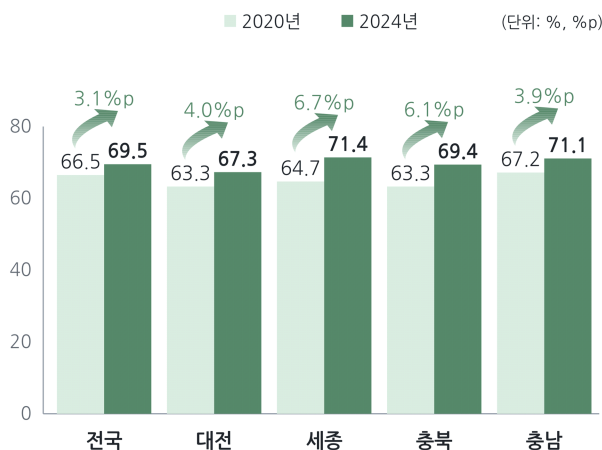
< 지역안전등급(2015년, 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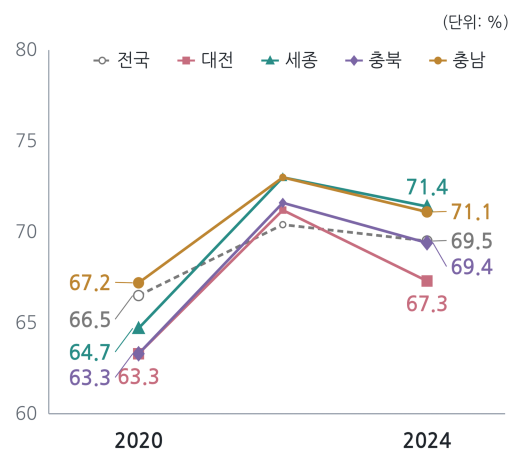
- 2024년 충청지역 야간보행 안전도는 대전 67.3%, 세종 71.4%, 충북 69.4%, 충남 71.1%로 세종 · 충남은 전국(69.5%)보다 높음

- 2020년 대비 2024년 야간보행 안전도는 대전(4.0%p), 세종(6.7%p), 충북(6.1%p), 충남(3.9%p) 모두 전국(3.1%p)보다 상승폭이 큼

< 야간보행 안전도 >



< 야간보행 안전도 변화 >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야간보행안전도)」

주: 1)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6개 분야를 동일 지방자치단체 유형 안에서 상대평가한 결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함(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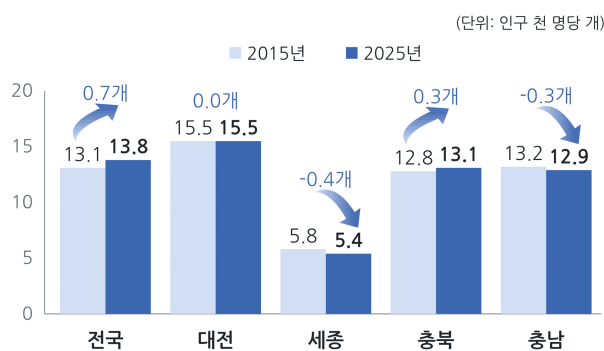
2) (13세 이상)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3. 보건의료 자원(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¹⁾ · 종사의사 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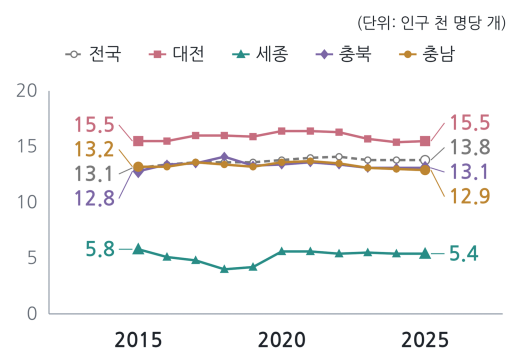
2025년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015년 대비 전국은 0.7개 증가한 반면, 세종은 0.4개 감소하였고, 종사의사 수는 전국 0.6명, 세종 0.8명 증가함

- 2025년 충청지역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대전 15.5개, 세종 5.4개, 충북 13.1개, 충남 12.9개로 대전은 전국(13.8개)보다 많음
- 2015년 대비 2025년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충북(0.3개)은 증가한 반면, 충남(-0.3개), 세종(-0.4개)은 감소함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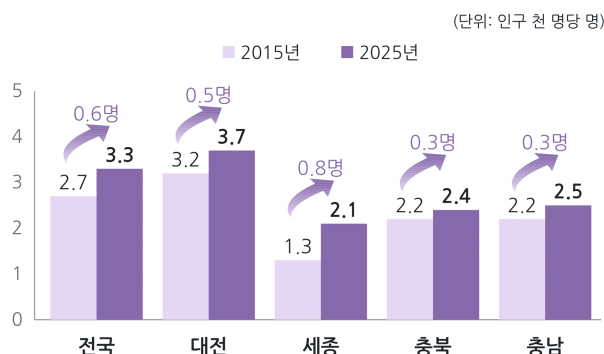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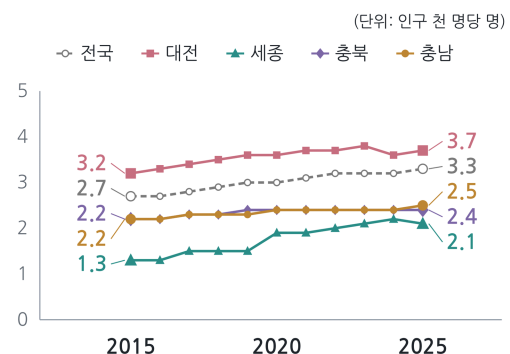
- 2025년 충청지역의 인구 천 명당 종사의사 수는 대전 3.7명, 세종 2.1명, 충북 2.4명, 충남 2.5명으로 대전은 전국(3.3명)보다 많음

- 2015년 대비 2025년 인구 천 명당 종사의사 수는 대전 0.5명, 세종 0.8명, 충북 · 충남 각 0.3명 증가함

< 인구 천 명당 종사의사 수 >



< 인구 천 명당 종사의사 수 변화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주: 1) 인구 천 명당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총 병상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2)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수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의사 수 = (의료기관 종사의사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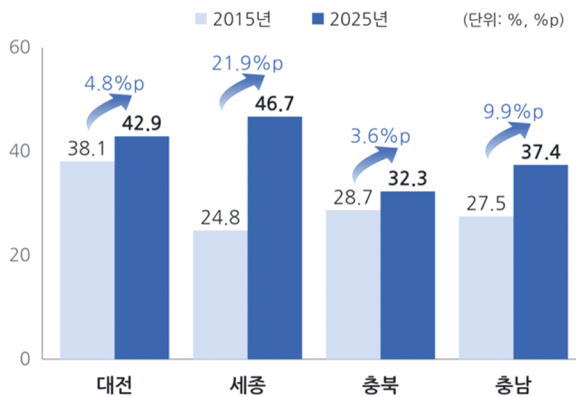
IV. 건강 · 여가

1. 건강생활 실천¹⁾(건강생활²⁾ · 걷기 실천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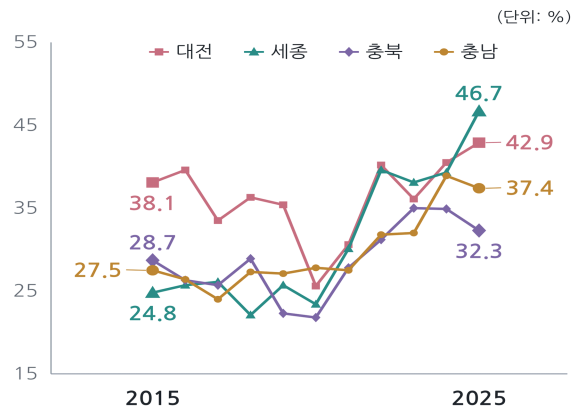
2025년 건강생활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은 2015년 대비 4개 시도 모두 상승하였으며, 세종은 각각 21.9%p, 20.0%p 상승하여 충청지역 중 상승폭이 가장 큼

- 2025년 건강생활 실천율은 대전 42.9%, 세종 46.7%, 충북 32.3%, 충남 37.4%이며, 2015년 대비 2025년 건강생활 실천율은 세종 21.9%p, 충남 9.9%p, 대전 4.8%p, 충북 3.6%p 순으로 상승함

< 건강생활 실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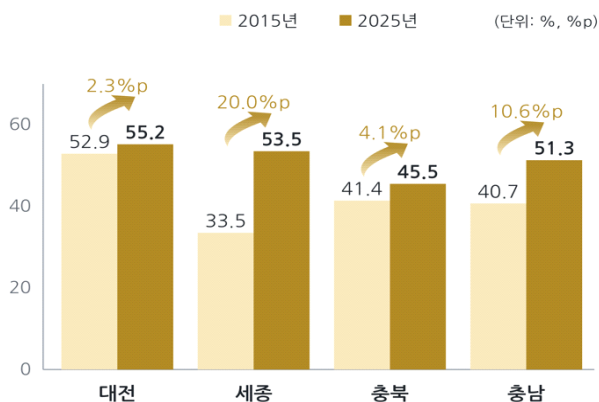


< 건강생활 실천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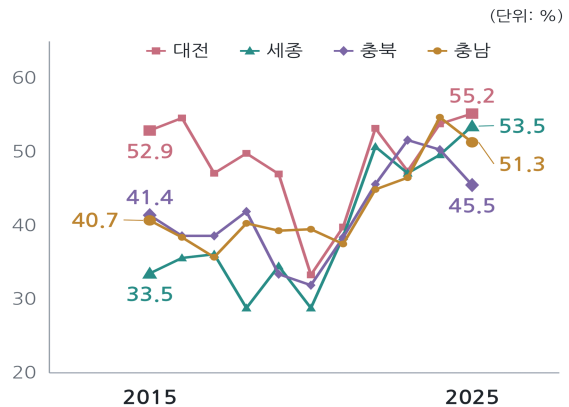


- 2025년 걷기 실천율은 대전 55.2%, 세종 53.5%, 충북 45.5%, 충남 51.3%이며, 2015년 대비 2025년 걷기 실천율은 세종 20.0%p, 충남 10.6%p, 충북 4.1%p, 대전 2.3%p 순으로 상승함

< 걷기 실천율 >



< 걷기 실천율 변화 >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는 연도 및 지역 간 인구구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5년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적용한 표준화율임

2) (19세 이상)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

3) (19세 이상)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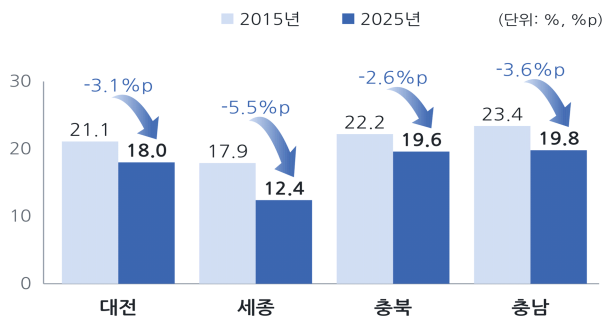
2. 건강 위험 요인

▪ 현재 흡연율¹⁾ · 월간 음주율²⁾ · 비만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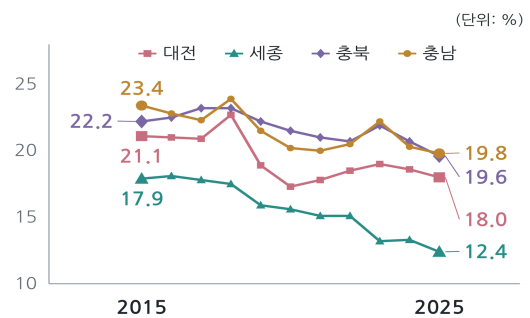
2025년 현재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은 2015년 대비 4개 시·도 모두 하락, 19세 이상 비만율은 4개 시·도 모두 상승하였고, 충남이 37.2%로 10.8%p 상승

□ 2025년 현재 흡연율은 대전 18.0%, 세종 12.4%, 충북 19.6%, 충남 19.8%이고, 2015년 대비 4개 시·도 모두 하락함

< 현재 흡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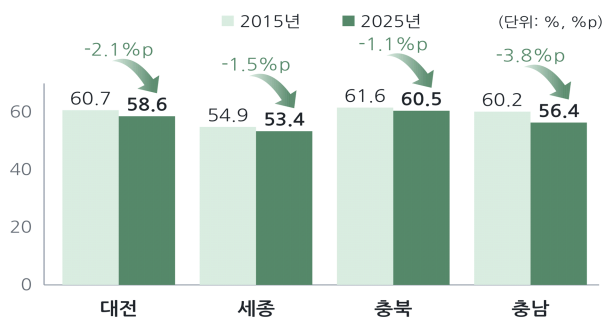


< 현재 흡연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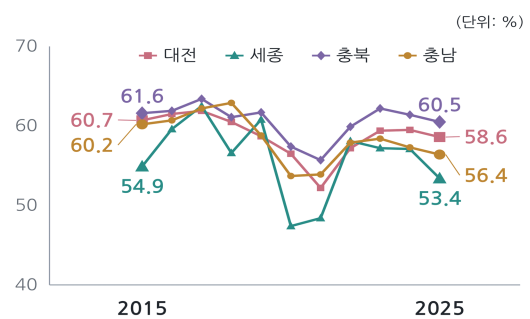


□ 2025년 월간 음주율은 대전 58.6%, 세종 53.4%, 충북 60.5%, 충남 56.4%이고, 2015년 대비 4개 시·도 모두 하락함

< 월간 음주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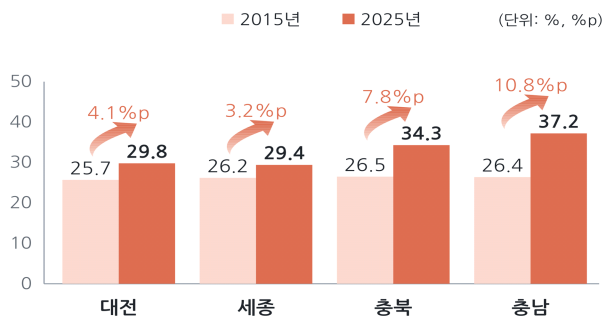


< 월간 음주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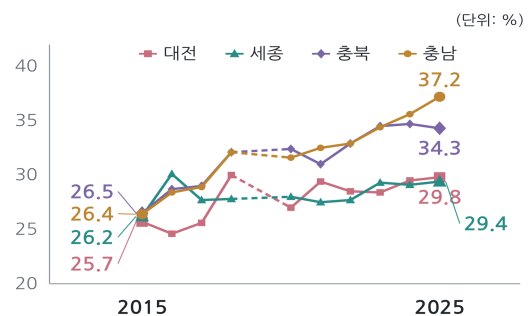


□ 2025년 비만율은 대전 29.8%, 세종 29.4%, 충북 34.3%, 충남 37.2%이고, 2015년 대비 4개 시·도 모두 상승함

< 비만율 >



< 비만율 변화 >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19세 이상) 평생 일반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하는 분율(%)

2)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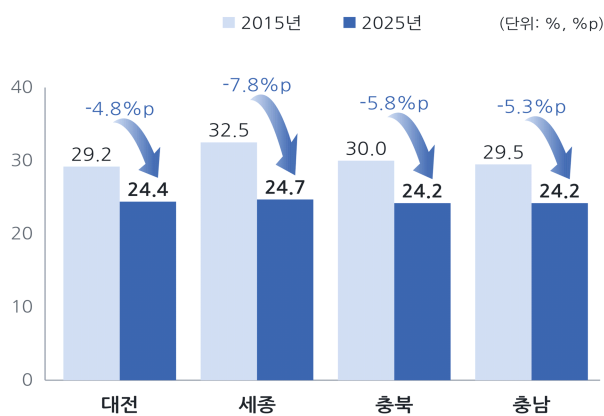
3) (19세 이상) 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m²)가 25 이상인 분율(%)

■ 스트레스 인지율¹⁾ · 우울감 경험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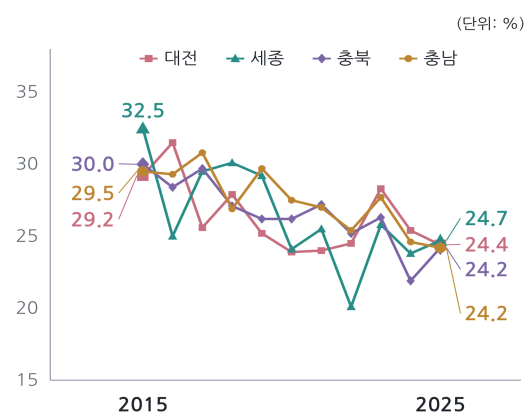
20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 대비 4개 시·도 모두 하락하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대전·세종·충북은 하락한 반면, 충남(0.4%p)은 상승함

- 20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전 24.4%, 세종 24.7%, 충북·충남 각 24.2%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전이 4.8%p, 세종이 7.8%p, 충북이 5.8%p, 충남이 5.3%p 하락함

< 스트레스 인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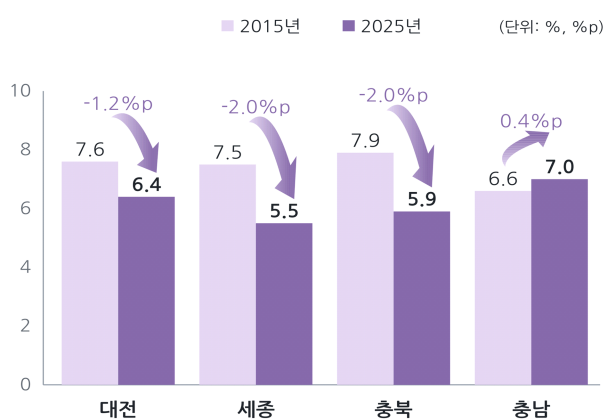


<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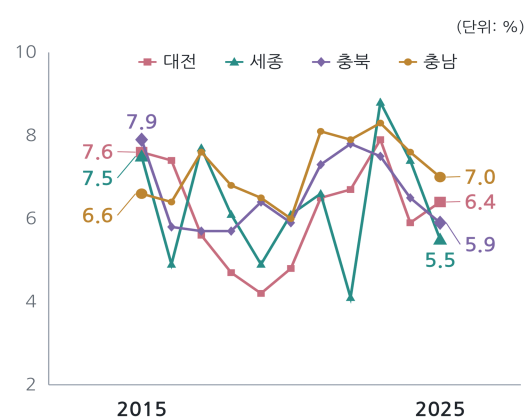


- 2025년 우울감 경험률은 대전 6.4%, 세종 5.5%, 충북 5.9%, 충남 7.0%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25년 우울감 경험률은 세종·충북 각 2.0%p, 대전 1.2%p 하락하였고, 충남은 0.4%p 상승함

< 우울감 경험률 >



< 우울감 경험률 변화 >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19세 이상)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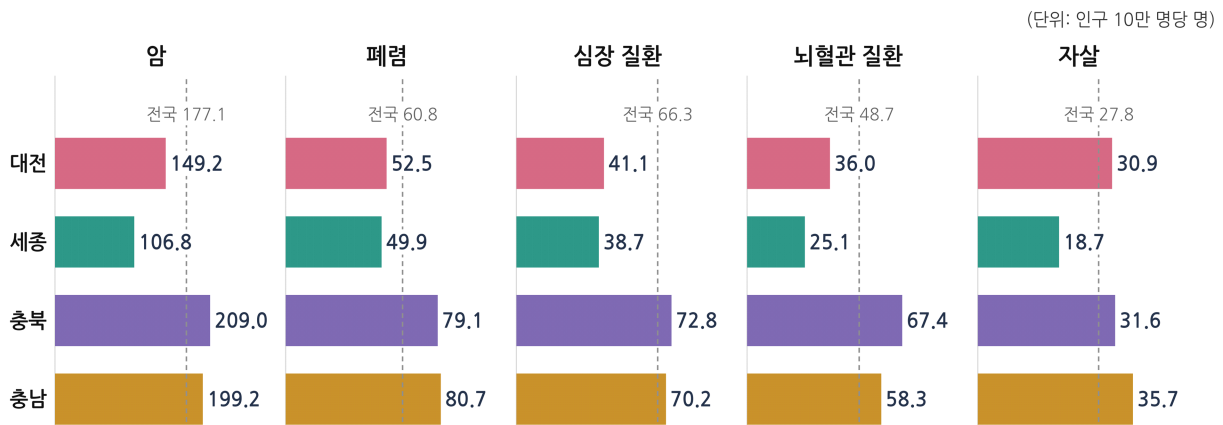
2)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3. 사망원인

2025년 충청지역의 주요 사망원인은 4개 시·도 모두 암, 폐렴, 심장 질환¹⁾, 뇌혈관 질환, 자살 순이며, 자살률은 충남이 35.7명으로 가장 높음

- 2025년 주요 사망원인은 4개 시·도 모두 암, 폐렴,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자살 순이며, 암 사망률²⁾(인구 10만 명당)은 대전 149.2명, 세종 106.8명, 충북 209.0명, 충남 199.2명으로 나타났고, 충북·충남은 전국(177.1명)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암 사망률은 충북 32.1명, 대전 19.9명, 충남 16.4명 순으로 증가한 반면, 세종은 40.0명 감소함
- 2025년 자살률은 대전 30.9명, 세종 18.7명, 충북 31.6명, 충남 35.7명으로 대전·충북·충남은 전국(27.8명)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자살률은 대전 3.9명, 충북 1.2명, 충남 0.7명 증가하였고, 세종은 3.8명 감소함

<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상위 5개(202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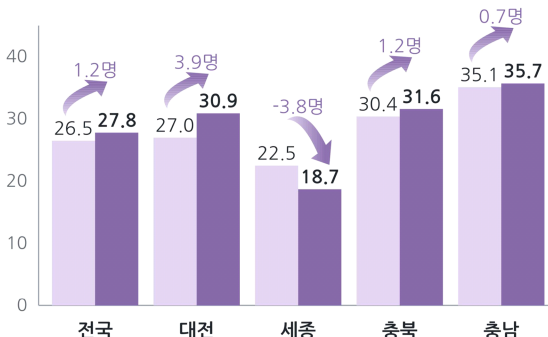
< 암 사망률 >

■ 2015년 ■ 2025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 자살률 >

■ 2015년 ■ 2025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주: 1) 심장 질환 = 허혈성 심장 질환 + 기타 심장 질환

2)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 (해당 원인 연간 사망자 수 ÷ 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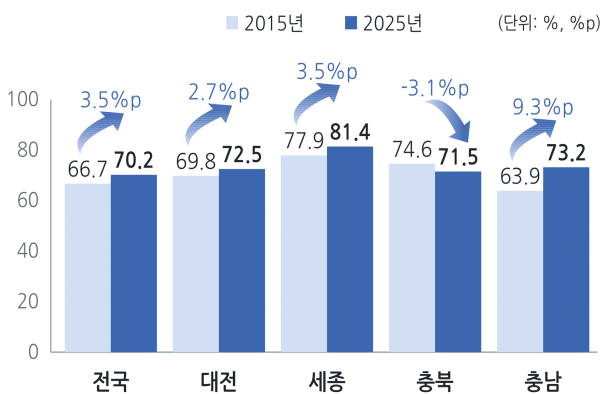
4. 여가활동

2025년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¹⁾은 2015년 대비 전국 3.5%p, 충남 9.3%p 상승하였으며, 해외여행 경험률²⁾은 전국 11.8%p, 세종 14.7%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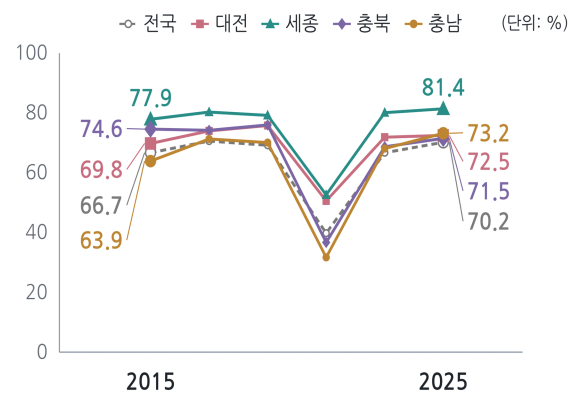
□ 2025년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은 대전 72.5%, 세종 81.4%, 충북 71.5%, 충남 73.2%로 4개 시·도 모두 전국(70.2%)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은 대전은 2.7%p, 세종은 3.5%p, 충남은 9.3%p 상승한 반면, 충북은 3.1%p 하락함

<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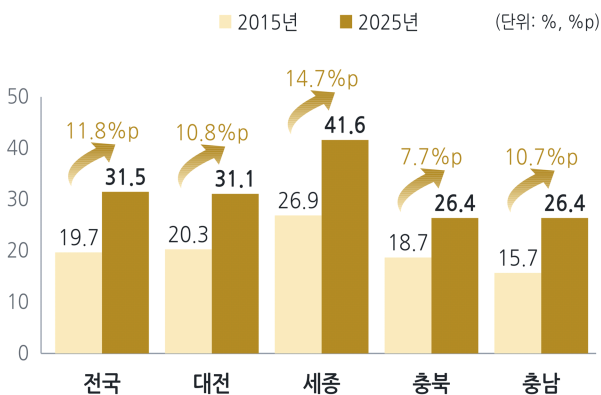
<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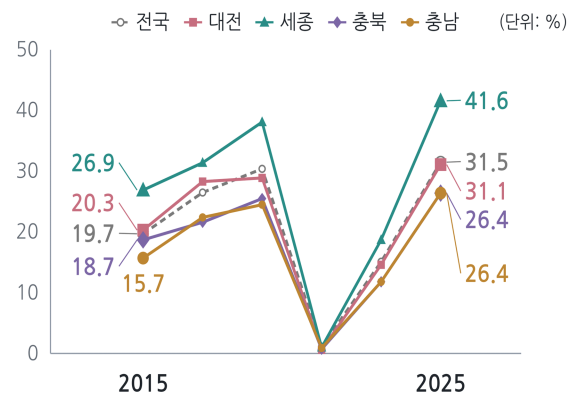
□ 2025년 해외여행 경험률은 대전 31.1%, 세종 41.6%, 충북·충남 각 26.4%로, 세종은 전국(31.5%)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해외여행 경험률은 대전 10.8%p, 세종 14.7%p, 충북 7.7%p, 충남 10.7%p 상승하였고, 세종은 전국(11.8%p)보다 상승폭이 큼

< 해외여행 경험률 >



< 해외여행 경험률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지난 1년 동안 국내 관광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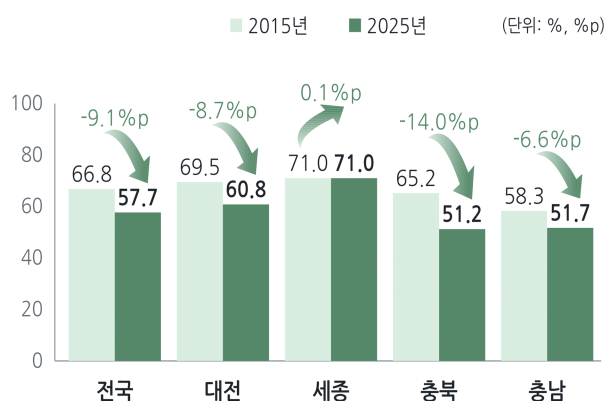
2) (13세 이상) 지난 1년 동안 해외에 다녀온 사람의 비율(관광, 가족방문, 업무, 교육 포함)

2025년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률¹⁾은 2015년 대비 전국 9.1%p, 충북 14.0%p 하락한 반면, 레저시설 이용률²⁾은 전국 0.2%p, 충남 7.4%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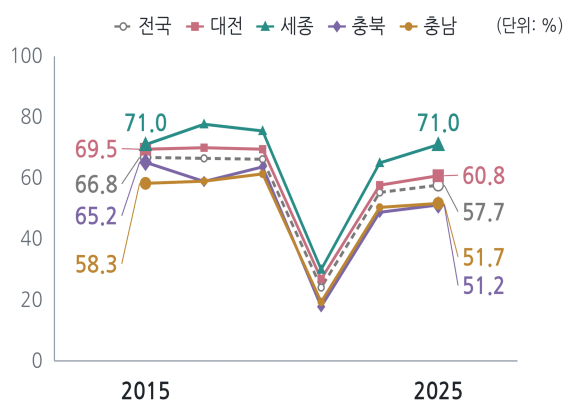
□ 2025년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률은 대전 60.8%, 세종 71.0%, 충북 51.2%, 충남 51.7%로 대전·세종은 전국(57.7%)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률은 대전 8.7%p, 충북 14.0%p, 충남 6.6%p 하락한 반면, 세종은 0.1%p 상승함

<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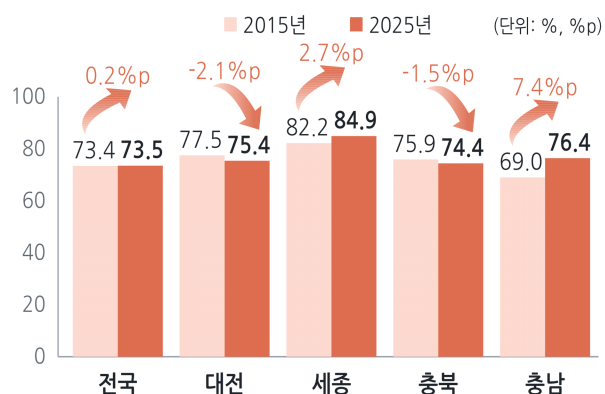
<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률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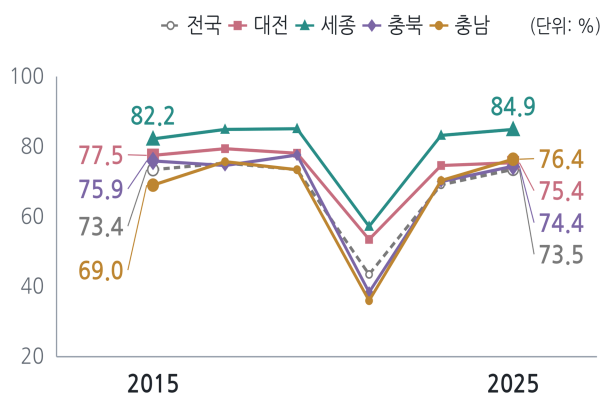
□ 2025년 레저시설 이용률은 대전 75.4%, 세종 84.9%, 충북 74.4%, 충남 76.4%로 나타났으며, 4개 시·도 모두 전국(73.5%)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레저시설 이용률은 세종 2.7%p, 충남 7.4%p 상승한 반면, 대전 2.1%p, 충북 1.5%p 하락하였고, 세종·충남은 전국(0.2%p)보다 상승폭이 큼

< 레저시설 이용률 >



< 레저시설 이용률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지난 1년 동안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경기를 현장에서 한 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2) (13세 이상) 지난 1년 동안 레저시설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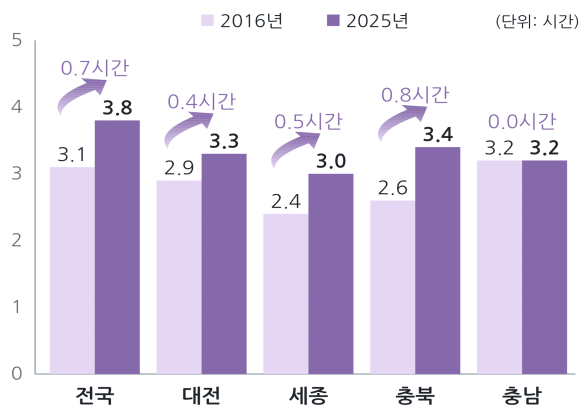
▪ 하루 평균 여가시간¹⁾

2025년 평일 여가시간은 2016년 대비 전국은 0.7시간, 충북은 0.8시간 증가하였으며, 휴일 여가시간은 전국은 0.6시간 증가한 반면, 세종은 0.7시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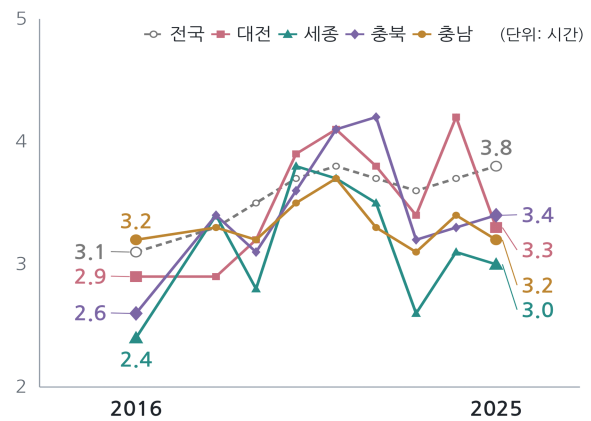
□ 2025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대전 3.3시간, 세종 3.0시간, 충북 3.4시간, 충남 3.2시간으로 4개 시·도 모두 전국(3.8시간)보다 짧음

○ 2016년 대비 2025년 평일 여가시간은 대전이 0.4시간, 세종이 0.5시간, 충북이 0.8시간 증가하였고, 충북은 전국(0.7시간)보다 증가폭이 큼

< 평일 여가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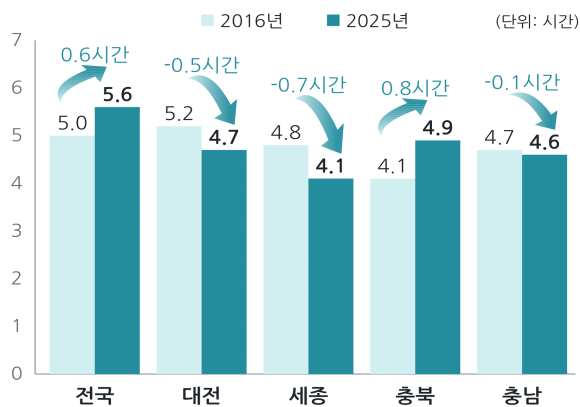
< 평일 여가시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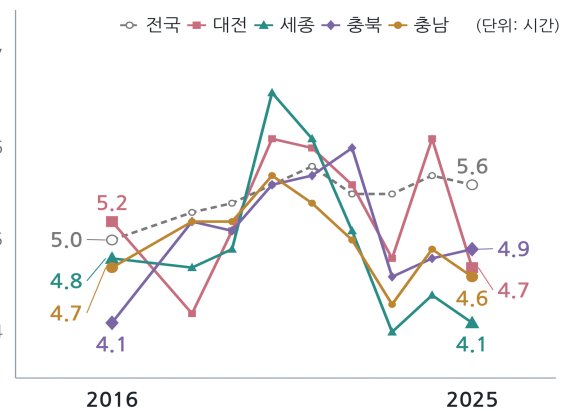
□ 2025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대전 4.7시간, 세종 4.1시간, 충북 4.9시간, 충남 4.6시간으로 4개 시·도 모두 전국(5.6시간)보다 짧음

○ 2016년 대비 2025년 휴일 여가시간은 충북은 0.8시간 증가한 반면, 대전은 0.5시간, 세종 0.7시간, 충남은 0.1시간 감소함

< 휴일 여가시간 >



< 휴일 여가시간 변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주: 1) (15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평일 및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V. 사회적 관계 ·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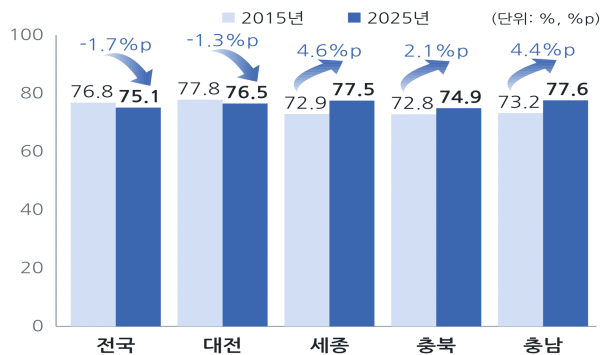
1. 사회적 관계(사회적 관계망¹⁾²⁾ · 대인관계 만족도

2025년 신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5년 대비 전국은 1.7%p 하락한 반면, 세종은 4.6%p 상승하였고, 경제적 도움은 전국이 1.3%p, 대전이 10.9%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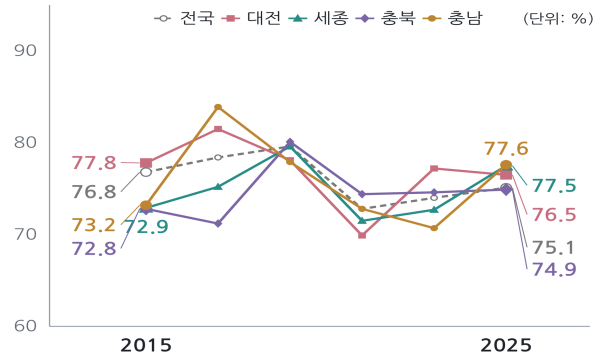
□ 2025년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비율(신체적 도움)은 대전 76.5%, 세종 77.5%, 충북 74.9%, 충남 77.6%로 나타났음

○ 2015년 대비 2025년 신체적 도움 비율은 세종은 4.6%p, 충북은 2.1%p, 충남은 4.4%p 상승하였고, 대전은 1.3%p 하락함

< 신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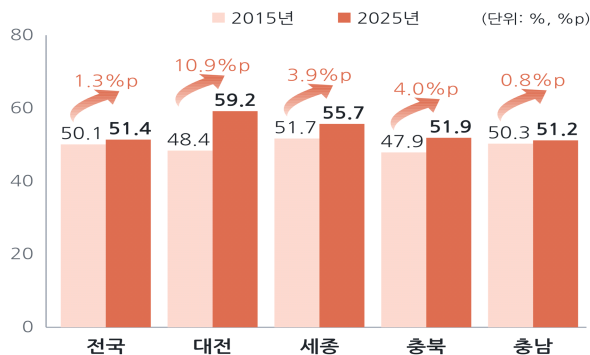
< 신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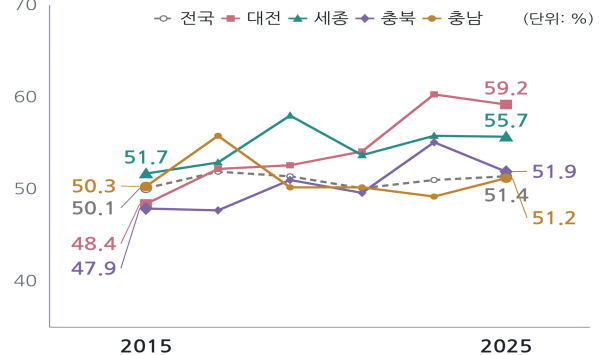
□ 2025년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경제적 도움)은 대전 59.2%, 세종 55.7%, 충북 51.9%, 충남 51.2%임

○ 2015년 대비 2025년 경제적 도움 비율은 대전이 10.9%p, 세종이 3.9%p, 충북이 4.0%p, 충남이 0.8%p 상승함

<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각 연도)」

주: 1) 신체적·경제적·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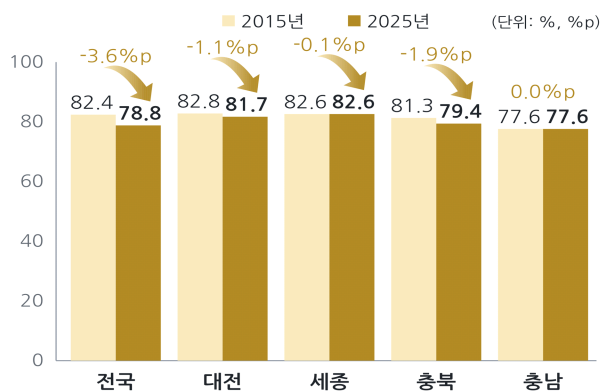
2) 신체적 도움(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은 19세 이상, 경제적 도움(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은 13세 이상 인구 대상

2025년 정신적 도움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2015년 대비 전국 3.6%p, 충북 1.9%p 하락하였고, 대인관계 만족도는 2017년 대비 전국 5.0%p, 충남 13.0%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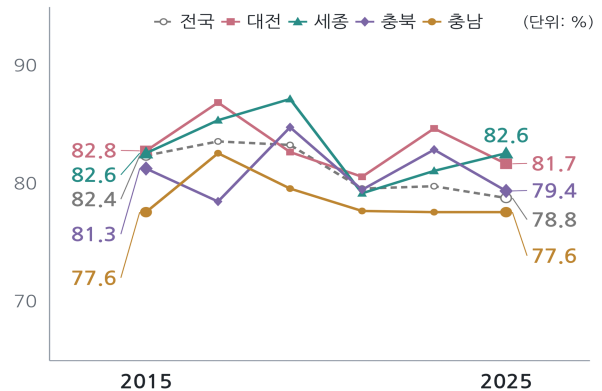
□ 2025년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정신적 도움)은 대전 81.7%, 세종 82.6%, 충북 79.4%, 충남 77.6%로 나타났고, 대전·세종·충북은 전국(78.8%)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정신적 도움 비율은 대전 1.1%p, 세종 0.1%p, 충북 1.9%p 하락함

<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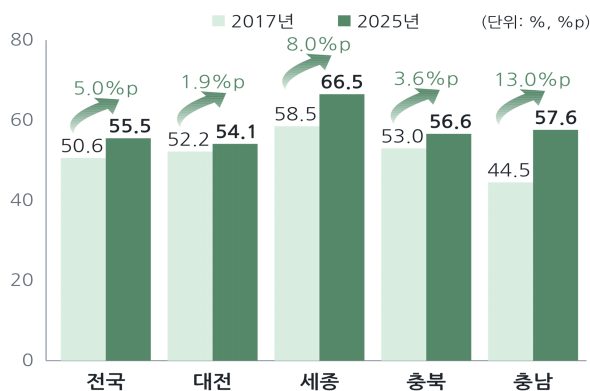
<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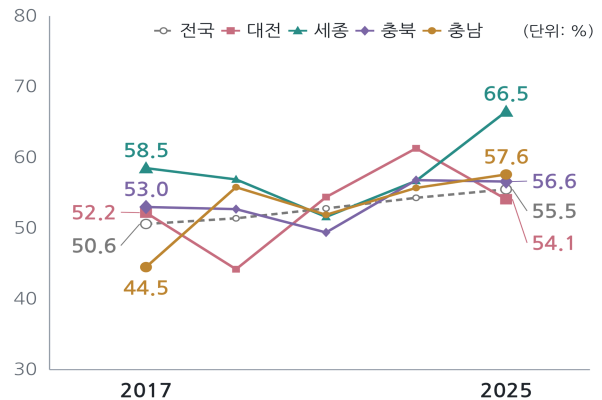
□ 2025년 대인관계 만족도²⁾는 대전 54.1%, 세종 66.5%, 충북 56.6%, 충남 57.6%이며, 세종·충북·충남은 전국(55.5%)보다 높음

○ 2017년 대비 2025년 대인관계 만족도는 충남 13.0%p, 세종 8.0%p, 충북 3.6%p, 대전 1.9%p 순으로 상승함

< 대인관계 만족도 >



< 대인관계 만족도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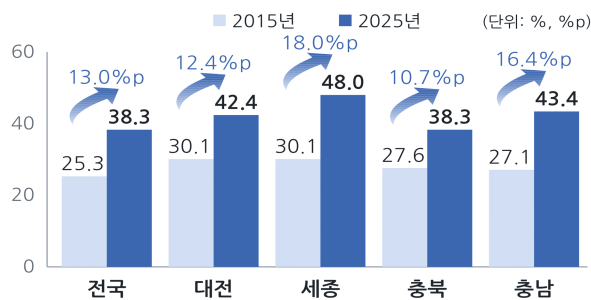
주: 1) (13세 이상)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13세 이상)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2. 경제생활 만족도(근로여건 · 소득 · 소비생활 만족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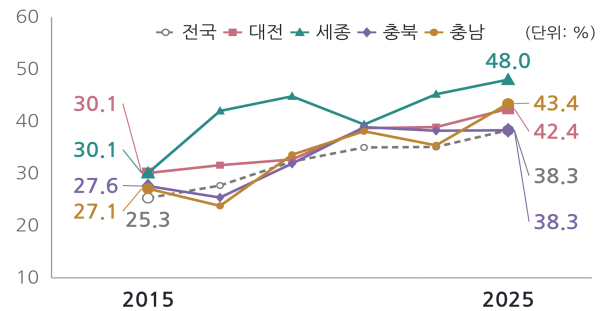
2025년 근로여건 만족도는 2015년 대비 전국 13.0%p, 세종 18.0%p 상승, 소득 만족도는 전국 16.6%p, 대전 21.9%p 상승, 소비생활 만족도는 4개 시도 모두 상승함

- 2025년 근로여건 만족도는 대전 42.4%, 세종 48.0%, 충북 38.3%, 충남 43.4%이고, 2015년 대비 근로여건 만족도는 세종(18.0%p)의 상승폭이 가장 큼

< 근로여건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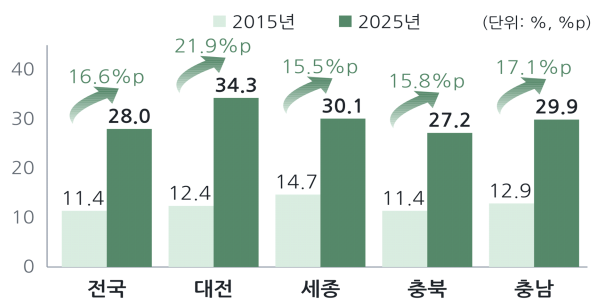


< 근로여건 만족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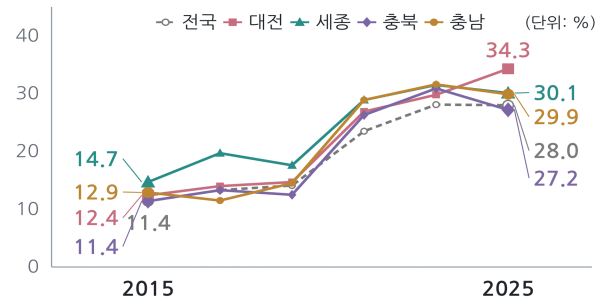


- 2025년 소득 만족도는 대전 34.3%, 세종 30.1%, 충북 27.2%, 충남 29.9%이고, 2015년 대비 소득 만족도는 대전(21.9%p)의 상승폭이 가장 큼

< 소득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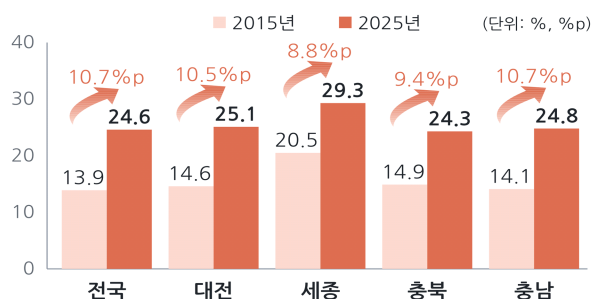


< 소득 만족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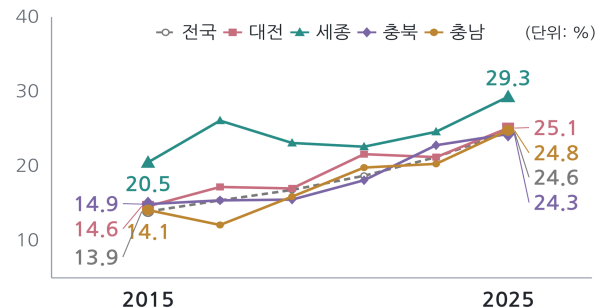


- 2025년 소비생활 만족도는 대전 25.1%, 세종 29.3%, 충북 24.3%, 충남 24.8%이고, 2015년 대비 소비생활 만족도는 충남(10.7%p)의 상승폭이 가장 큼

< 소비생활 만족도 >



< 소비생활 만족도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근로여건 만족도(13세 이상 중 지난 1주일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 소득 만족도(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 소비생활 만족도(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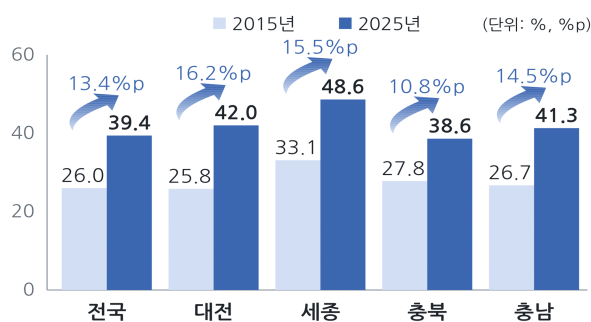
3. 여가생활 만족도(여가생활 만족도¹⁾ 및 불만족 이유²⁾)

2025년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5년 대비 전국 13.4%p, 대전 16.2%p 상승하였으며,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는 2015년·2025년 4개 시·도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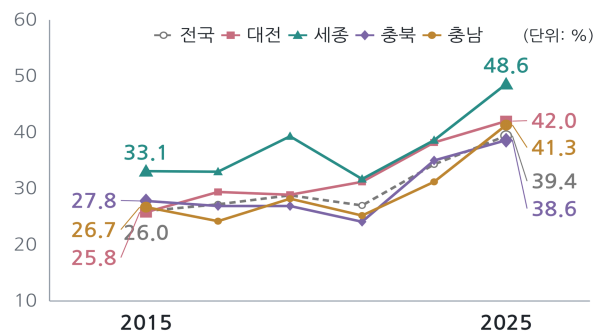
□ 2025년 여가생활 만족도는 대전 42.0%, 세종 48.6%, 충북 38.6%, 충남 41.3%로 나타났고, 대전·세종·충남은 전국(39.4%)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여가생활 만족도는 대전이 16.2%p, 세종이 15.5%p, 충북이 10.8%p, 충남이 14.5%p 상승함

< 여가생활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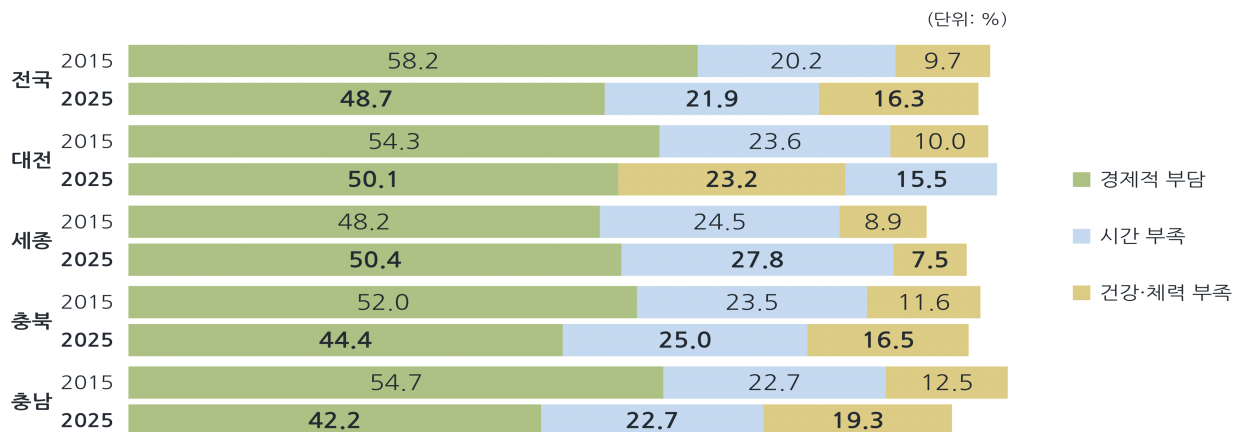
< 여가생활 만족도 변화 >



□ 2025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는 4개 시·도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고, 대전 50.1%, 세종 50.4%, 충북 44.4%, 충남 42.2%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25년 경제적 부담은 대전이 4.2%p, 충북이 7.5%p, 충남이 12.5%p 하락하였고, 세종은 2.2%p 상승함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구성비 상위 3개(2015년, 2025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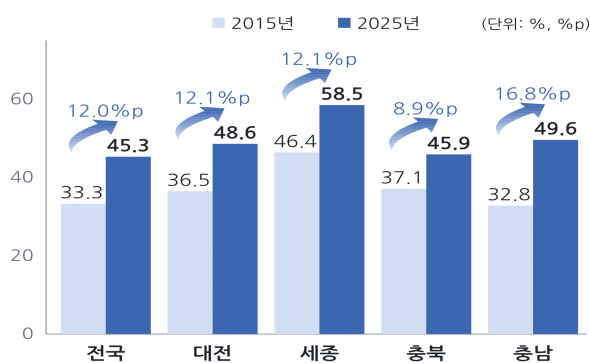
2) (13세 이상)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불만족 이유별 응답 비율

4. 삶의 만족도(삶의 만족도¹⁾ · 성취 만족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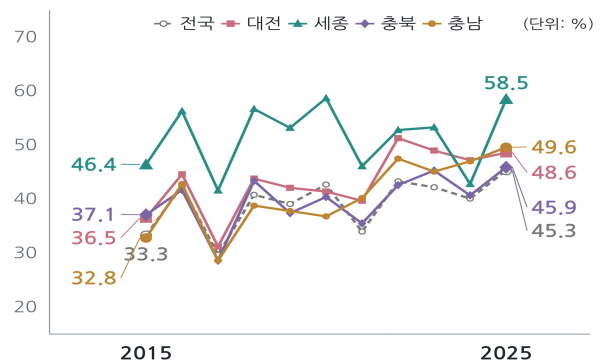
2025년 삶의 만족도는 2015년 대비 전국 12.0%p, 충남 16.8%p 상승하였으며, 성취 만족도는 2017년 대비 전국 10.2%p, 충남 13.8%p 상승함

- 2025년 삶의 만족도는 대전 48.6%, 세종 58.5%, 충북 45.9%, 충남 49.6%로 4개 시·도 모두 전국(45.3%)보다 높음
- 2015년 대비 2025년 삶의 만족도는 대전·세종 각 12.1%p, 충북 8.9%p, 충남 16.8%p 상승하였고, 대전·세종·충남은 전국(12.0%p)보다 상승폭이 큼

< 삶의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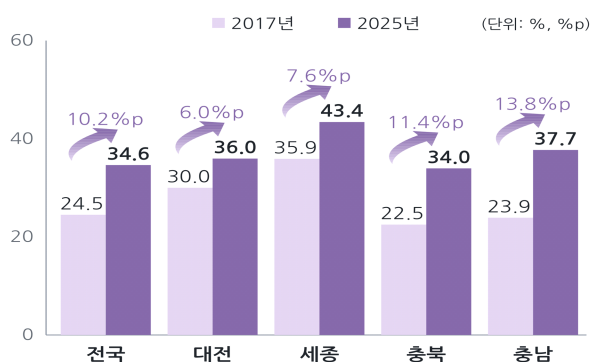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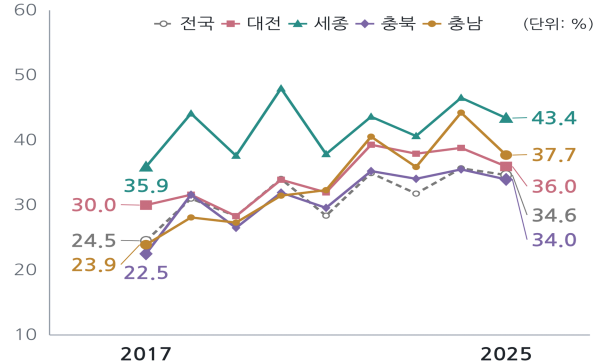


- 2025년 성취 만족도는 대전 36.0%, 세종 43.4%, 충북 34.0%, 충남 37.7%로 나타났고, 대전·세종·충남은 전국(34.6%)보다 높음
- 2017년 대비 2025년 성취 만족도는 충남 13.8%p, 충북 11.4%p, 세종 7.6%p, 대전 6.0%p 순으로 상승하였고, 충남·충북은 전국(10.2%p)보다 상승폭이 큼

< 성취 만족도 >



< 성취 만족도 변화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주: 1) (13세 이상)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 (19세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참고

주요 용어 및 해설

용어	해설
총인구	■ 매년 11월 1일 0시 현재 국내에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수 -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연령계층별 인구	■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한 인구 - 구성비(%) = (해당 연령계층 인구 ÷ 총인구) × 100
청년인구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하나, 충청지역 3개 시·도(세종·충북·충남)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을 19~39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청년 인구를 19~39세로 산정함 - 청년인구 비율(%) = (19~39세 인구 ÷ 총인구) × 100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해당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0세의 기대여명) - 시·도별 「생명표」는 3년 주기(2014·2017·2020·2023년) 작성
일반가구	■ 혼자 사는 가구,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비친족이 함께 사는 가구, 비친족 5인 이하가 함께 사는 가구 - 집단가구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제외
1인가구	■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1인가구 비율(%) = (1인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조혼인율	■ 인구 1,000명당 한 해 동안 발생한 혼인 건수 - 조혼인율 = (연간 혼인 건수 ÷ 연앙인구) × 1,000
조이혼율	■ 인구 1,000명당 한 해 동안 발생한 이혼 건수 - 조이혼율 = (연간 이혼 건수 ÷ 연앙인구) × 1,000
지역내총생산 (GRDP, 명목)	■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으로, 지역의 경제 규모와 구조 파악에 활용 - 당해년 가격 기준 - 2024년 값은 잠정추계(p)로 2026년 12월 확정 시 변경 가능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지역내총생산(명목)을 해당 지역의 추계인구로 나눈 값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지역내총생산 ÷ 추계인구
경제성장률(실질)	■ 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 지역내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 - 경제성장률(%) = {(당해년 실질 GRDP - 전년 실질 GRDP) ÷ 전년 실질 GRDP} × 100
사업체	■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의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로, 한 기업이 여러 장소에서 운영하는 공장·지점 등은 각각의 사업체로 집계 -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용어	해설
종사자	■ 조사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등)
매출액	■ 사업체가 1년 동안 영업활동으로 얻은 상품 판매액과 서비스 수입액의 합
산업분류	■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산업을 구분한 것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적용(사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 공통)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주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함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일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가구 소득	■ 가구원이 한 해 동안 얻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가구당 평균 소득(경상소득) - 조사연도 전년 1년간 금액(2025년 조사값 = 2024년 소득)
가구 자산	■ 가구가 보유한 금융자산(저축액, 전·월세보증금 등)과 실물자산(부동산 등)의 가구당 평균 금액 -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가구 부채	■ 가구의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구당 평균 금액 -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가구 순자산	■ 가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평균 금액 - 순자산 = 자산 - 부채 - 세종은 2018년부터 공표되어 가구 경제 지표는 2018년과 비교
주택 수	■ 주택보급률 산정에 쓰이는 주택의 수로, 빈집을 포함하고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하여 집계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기준
다가구 구분거처	■ 하나의 다가구주택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분된 거주 공간
주택보급률	■ 일반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비율로 주택의 양적 공급 수준을 나타내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과는 다름 -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일반가구 수) × 100
미거주 주택(빈집) 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일(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도 포함 - 빈집 비율(%) = (미거주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 100
노후주택 비율	■ 전체 주택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노후주택 비율(%)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 100
지역안전등급	■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안에서 상대평가하여 1~5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 상위부터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

용어	해설
야간보행 안전도	13세 이상 인구 중 밤에 혼자 걸을 때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 「사회조사」 격년 조사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의료기관 총 병상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의사 수	-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수 - 인구 천 명당 종사의사 수 =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표준화율	- 연도·지역 간 인구구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인구의 연령 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비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건강생활 실천율~우울감 경험률)는 2005년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한 표준화율
건강생활 실천율	19세 이상 인구 중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걷기 실천율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
현재 흡연율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일반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사람의 비율
월간 음주율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비만율(자가보고)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응답한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MI)가 25kg/m² 이상인 사람의 비율 - BMI = 몸무게(kg) ÷ {키(m) × 키(m)}
스트레스 인지율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아' 또는 '많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우울감 경험률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의료기관의 우울증 진단율과 다름
사망원인별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특정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연령구조 미보정 조사망률) - 사망원인별 사망률 = (해당 원인 연간 사망자 수 ÷ 연앙인구) × 100,000
암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악성신생물(암)로 사망한 사람의 수 - 암 사망률 = (연간 암 사망자 수 ÷ 연앙인구) × 100,000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 - 자살률 = (연간 자살 사망자 수 ÷ 연앙인구) × 100,000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을 합한 것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 관광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사회조사」 격년 조사
해외여행 경험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관광·가족 방문·업무·교육 목적 포함) - 「사회조사」 격년 조사

용어	해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경기를 현장에서 한 번 이상 관람한 사람의 비율
레저시설 이용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레저시설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하루 평균 여가시간	15세 이상 인구가 최근 1년 동안 평일과 휴일에 각각 보낸 하루 평균 여가시간 - 단위: 시간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관계망	-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신체적·경제적·정신적 도움으로 구분
신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19세 이상 인구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13세 이상 인구 중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13세 이상 인구 중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대인관계 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2017년 신설 문항
근로여건 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 현재 일자리의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소득 만족도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소비생활 만족도	19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여가생활 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여가생활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구성비	- 여가생활에 '약간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3세 이상 인구의 불만족 이유별(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건강·체력 부족 등) 응답 비율 - 구성비 합계 100%
삶의 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성취 만족도	19세 이상 인구 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성취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